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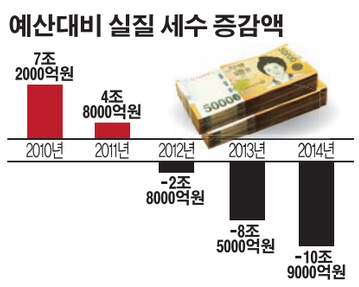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제1087호

작년 세수결손 사상 최대

10조9000억 '펑크'

경기침체 여파 3년 연속 결손
세계 잉여금도 8000억 적자
올 나라살림 '마이너스' 출발



지난해 경기침체로 애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국세 부족분이 10조 9000억원에 달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 적자폭도 8000억원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는 3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라 살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10일 '2014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이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다음 연도 이월액인 8조원을 빼면 세계 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세입이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세수 부진으로 국세(205조5000억원)가 예산(216조5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예산 대비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등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 세계 잉여금도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2년(1000억원 적자), 2013년(7554억원 적자)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라 살림을 시작하게 됐다.

총세출은 정부 예산(317조원)의 92%인 29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사용하기로 계획된 예산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회계 간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총 불용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 지출 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해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

금융사 종합검사 2017년까지 폐지

금감원, 배당·이자율·수수료 등 경영간섭 최소화

'금융감독 쇄신 방향' 발표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7년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등 결정에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를 강화해 중대한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금융회사는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쇄신 방안은 금융감독 혁신과 검사·제재 관행 개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적폐 청산, 신뢰 회복 등 5대 부문 25개 과제 및 60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았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여하도록 감독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2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오는 2017년 이후 폐지키로 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구체적 폐지 시기는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상시감시 기능 보완 정도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불법 외환거래 등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회계 감리주기 단축 및 사전예고를 통한 테마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위장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지·김희진 기자 kimmj@



최경환 부총리 ▶4
정기화 대표 ▶6

Market 화요섹션 17~21면
커버스토리
효도 재테크 투자상품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세계, 알리바바 타고 中역직구족 공략

이마트, 알리바바몰에 통째로 입점 국산제품 온라인 판매


마윈 알리바바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중국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다. 중국 대형 할인점에서 쓴맛을 본 정 부회장이 현지 온라인 쇼핑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에 이마트를 통째로 입점시켜 중국 소비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알리바바그룹의 '티몰 글로벌'에 이마트관 운영을 위한 도메인(emart.tmall.hk)을 국내 대형 마트 최초로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마트 전용관은 오는 3월 중순 오픈된다.

정 부회장이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현지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티몰 글로벌에 진출키로 한 이유는 이마트 매장을 찾는 요우커들의 왕성한 소비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제주와 동인천지역 이마트 점포는 김,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과 여성용품 등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필수상품 매출이 일반 점포보다 평균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정 부회장은 연 4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몰 시장에 주목했다. 국내 대형 마트 1위 이마트 입점을 통해 중국 역직구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이마트는 오는 3월 중순 이마트관을 열고 중국인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과 함께 전기밥솥, 홍삼정, 여성용품 등 100여개 상품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제품 수는 올 상반기까지 500여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최우정 이마트 온라인 총괄 부사장은 "중국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한국 이상이며 해외 직접구매 성장도 가파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이마트몰의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은 한국 상품의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중국 시장 역직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중국 톈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오청점, 광화차오점, 메이쟝점, 홍차오점 등 4개 점포의 영업을 종료했다. 중국 내 이마트는 상하이 8개점, 우시와 쿤산 각 1개점 등 모두 10개 점포만 남아 있다. 대형 할인점에서 온라인 역직구로 전략을 바꿔 중국 사업의 명예회복을 꾀한다는 게 정 부회장의 생각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당초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황제 특강', 삼청교육대 근무 이력, 부동산 투기, 병역 특혜,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등 잇단 의혹에 '언론사 외압' 논란까지 일면서 청문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한다. ▶관련기사 4면 노진환 기자 myfixer@

中버스는 한국시장 역습

선롱버스 "올 1000대 판매" 목표… 서울모터쇼 첫 참가

중국산 버스가 한국 시장에 밀려오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 선롱버스는 오는 4월 개최되는 서울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선롱버스의 한국 법인인 선롱버스코리아는 서울모터쇼에서 '듀에고 EX'를 포함 다양한 신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선롱버스가 서울모터쇼에 참가할 정도로 한국 공략을 강화하는 것은 판매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13년 25인승 버스인 '듀에고'를 110대 판매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00대로 판매량을 대폭 늘렸다. 올해는 한국 시장에서 1000대 판매를 자신하고 있다.

듀에고의 장점은 사양이다. 듀에고의 가격은 6650만원이다. 유일한 경쟁차량인 현대차의 '카운티' 주력 모델과 비슷한 수준이다. 듀에고는 전장 7485mm로 카운티(7085mm)보다 길어 좌석이 넓은 만큼 여행업계나 학원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선롱버스의 예상 밖 선전에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형버스를 포함, 지난달 국내에서 593대의 버스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5대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특히 중형버스 시장에서 선롱버스의 약진이 지속되면서 현대차 카운티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선롱버스는 현재 전국에 23개 지정정비센터를 갖추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전담인원을 배치해 통합 관리를 제공하는 차별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신차 출고 3일 이내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출고된 차량은 전담직원을 둬 지속적으로 차량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국내 업체는 실시하지 않는 서비스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삼성전자-MS 특허료 분쟁 마침표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료 분쟁이 종료됐다. 10일 양사는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특허료 분쟁에 합의하고 소송을 끝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9월 MS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노키아를 인수하자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3년 MS에 약 10억 달러(약 1조600억원)의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MS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급을 늦추면서 발생한 690만 달러의 이자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등에 중재 신청을 냈으며, MS도 삼성전자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하는 등 소송전을 벌여 왔다. 특허분쟁 종료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MS와 특허료 분쟁에 합의하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양사가 합의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한 만큼 구체적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하루 한생각

功七過三
(공칠과삼)

잘한 것이 일곱이고 잘못한 게 셋

▶ 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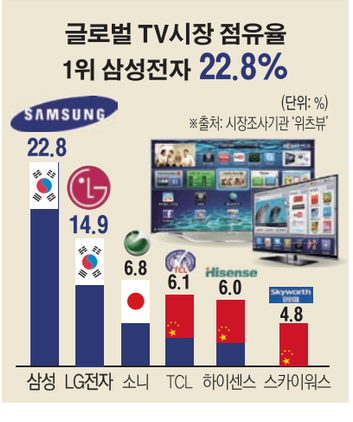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 News

세계 명품시장 양극화 '미국만 독주'

전 세계 주요 명품업체들이 유럽, 중국, 러시아, 한국을 뒤로하고 '나홀로 잘나가는' 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는 유럽, 중국, 러시아, 한국의 명품시장 매출과 순익이 줄거나 답보상태지만 미국 경제만 홀로 성장하고 있어 시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명품시장 규모는 733억 달러(약 80조3002억원)에 달해 매출 1위 국가로 집계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글로벌 TV시장 투톱은 삼성·LG

지난해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합계 4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했다. 10일 시장조사업체 위츠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LCD TV 시장에서 전년(21%) 대비 1.8%포인트 늘어난 22.8%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세계 TV 시장에서 9년 연속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LG전자는 같은 기간 1.2%포인트 오른 14.9%의 점유율로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일동제약 '경영권 분쟁' 2R… 녹십자·피델리티 연합전선?

일동제약과 녹십자 간 경영권 분쟁이 1년 만에 재점화되면서, 일동제약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피델리티 펀드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떠올랐다. 피델리티가 일동제약과 녹십자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녹십자가 지난 6일 일동제약에 이사진 선임 요구안(사외이사와 감사 교체 선임)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발송하면서, 1년 만에 다시 불거진 경영권 분쟁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사 간 감정싸움이 격화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일동제약(지분율 32.52%)과 2대 주주인 녹십자(29.36%) 간의 표 대결은 불가피하다. 양사 간 지분율 차이가 3.16%포인트에 그쳐, 이번 주총에서 피델리티의 발언권은 그만큼 강해졌다.



지난해 초 일동제약 2대 주주에 오른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을 반대하면서 불거진 경영권 분쟁이 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양재동 일동제약 본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사진 교체 요구' 3월 주총 표대결
지분 10% 보유…'피델리티'가 키맨
작년 녹십자와 지주사 전환 반대표
다툼 지속될수록 시세차익도 짭짤

◇사외이사 선임은 '박빙'…감사 선임은 녹십자가 '유리' = 일동제약 측과 녹십자 측의 지분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3월 정기 주총에서 뜨거운 표 대결이 예상된다. 먼저 일동제약 사외이사 선임건은 참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과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인 일동제약 측과 2대 주주인 녹십자 측 모두 일동제약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참석 주주의 표 향방에 따라 녹십자가 추천한 인물로 사외이사가 교체될지 말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델리티 측과 기타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임시 주총에서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을 무산시킬 당시 반대 의견이 45.4%인 것을 이번 사외이사 선임건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녹십자 측과 피델리티 측 등이 얻은 표는 과반수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참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녹십자의 바람대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피델리티 측이 녹십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녹십자 측은 이사 선임안에 대한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는 구조다. 소액 주주가 어느 쪽에 우호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델리티 측의 표심은 녹십자뿐만 아니라 일동제약에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감사 선임건은 현재로서는 녹십자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3% 초과 의결권 제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1인으로 보고 3%만 의결권이 행사된다. 따라서 일동제약의 경우 최대주주인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의 개인회사인 씨엠제이씨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17인은 1인 주주로 간주돼 32.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2대 주주인 녹십자 측은 27.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녹십자만 3% 초과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녹십자홀딩스(0.88%)와 녹십자셀(0.99%)의 지분은 감사 선임에 있어서 그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녹십자 측이 일동제약 측보다 1.87%포인트 앞서게 된다. 물론 캐스팅보트로 피델리티 측의 표심이 누구에게로 향할지도 감사 선임에 있어서 관건이다.

◇'캐스팅보트' 피델리티, 녹십자 편에 설 가능성 높아 = 사외이사나 감사 선임건 모두 최대주주인 일동제약 측과 2대 주주인 녹십자 측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동제약 지분 10%를 보유해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린 피델리티 측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델리티 측은 녹십자의 주주제안서 발송으로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 있어 중립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델리티 측이 일동제약 경영에 있어서 중차대한 이슈였던 지주사 전환을 위한 회사 분할 건에서 녹십자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이번 이사진 선임건에서도 다시 한 번 녹십자와 뜻을 같이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동제약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일동제약 주가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재무적 투자자(FI) 성격의 피델리티 측은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녹십자 편에 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인효 기자 kangih@

일동 주가 '우상향' 전망속 애널은 '입조심'

지분 확보 경쟁에 최고가 … "주가 띄우기 가능성 추격매수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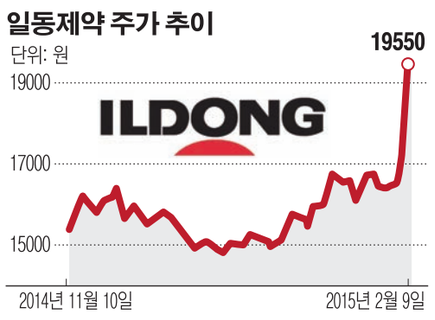
일동제약과 녹십자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가운데 일동제약 주가 전망은 일단 밝다. 녹십자가 일동제약을 적대적으로 인수할 경우 단숨에 제약업계 1위로 뛰어오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녹십자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며 9일 가격제한폭인 15%까지 급등한 1만9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일동제약 상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2년 중반까지 주가가 6000원대에 머물렀지만 2년6개월여 만에 3배 가까이 올랐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은 녹십자와의 경영권 분쟁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 제품인 '고유에 리프팅 앰플' 제품이 TV홈쇼핑에서 인기를 끌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여기에 녹십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설이 수시로 불거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추격 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녹십자가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주주제안서를 제출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십자는 2011년부터 매입한 동아제약 주식(지분 4.2%)을 2013년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일동제약에 대해 리포트는 물론이고 주가 향방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현실화돼 주가가 급등할 수도, 단순한 주가부양 차원으로 끝나서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동제약의 최대주주 측 보유 주식 수는 815만1126주(지분율 32.52%)이며, 2대 주주인 녹십자 측은 735만9773주(29.36%)를 보유하고 있다. 일동제약 측과 녹십자 측의 지분 격차는 단 3.16%P에 불과한 상황이다. 녹십자 측에서 추가로 79만1353주를 확보할 경우 일동제약 지분을 뛰어넘게 된다.

정유현 기자 yhssoo@

제약사 '생존형 합종연횡' 신호탄?

실적부진으로 촉발된 적대적 M&A 위기감 "뭉쳐야 산다"

일동제약 경영권 분쟁이 1년 만에 재점화되면서 실적이 떨어진 제약사 간 합종연횡의 계기가 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십자가 지난 6일 일동제약에 이사진 선임 요구안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발송하면서 일동제약의 최근 경영 실적 부진을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동제약은 이 같은 녹십자의 행태에 불만을 토로하며 9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일동제약 측은 "녹십자는 그간 일동제약에 대한 녹십자의 주주 권리 행사가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가 아닌 상호 협력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면서도 "이번에는 일동제약의 지난해 실적을 호도하고 예고 없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등 일련의 권리행사가 적대적 M&A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십자 측은 경영권 참여 이유에서 일동제약의 지난해 3분기 실적 부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제약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영업이익(이하 연결 기준)은 47억111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0%가량 줄었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1081억원으로 0.9%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녹십자는 일동제약을 향한 적대적 M&A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녹십자가 일동제약 인수에 성공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배구조가 취약한 제약사들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 9753억원을 기록한 녹십자가 지난해 매출 40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되는 일동제약을 인수할 경우, 유한양행을 제치고 단숨에 제약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면서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실적 부진을 볼모로 적대적 M&A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실적 부진 제약사를 중심으로 합종연횡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인효 기자 kangih@



경기 안좋은데 장밋빛 전망만… 3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

2014년도 세입·세출 마감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전년에 이어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역시 정부가 3.8%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세수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10조5000억원(-5.1%) 감소했다. 전년도 국세 수입 실적(201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3조6000억원 늘었지만 전년 예산 대비로는 10조9000억원이 부족하다.

10조 웃도는 사상 최대 세수 결손액
정부 지나친 성장률 낙관에 세수부진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도 영향 미쳐
"3.8% 전망 올해도 목표달성 힘들듯"

특히 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2012년에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세수 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세수 대비 결손액 규모로 1998년 1차 추경예산 대비 결손액(-8조6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여전히 저조했던 것은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지난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저조한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등이 세수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총 불용액은 17조5000억원에 달했다.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 13조5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줄었다.

전년에 이어 세계잉여금도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964억원 흑자를 냈지만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8582억원 적자를 내 총 세계잉여금 적자는 7618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적자는 특별회계가 '세입재원 없는 이월'을 허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특회계의 경우 지난해 증권거래세분 농특세 부진 등으로 총 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은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0'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입·세출을 적정하게 편성해 세계잉여금을 균형 수준으로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세입은 예산과 대비해 유독 법인세의 감소폭이 컸다. 법인세 징수액은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고, 지난해 예산안과 비교해서도 3조3000억원(-7.2%)이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5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3조10000억원으로 예산 대비로는 9000억원(-22.5%) 줄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주식거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코스피 거래대금은 2013년 대비 1.05% 줄었다.

관세 또한 수입 부진과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1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환율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1달러당 1120원이였지만 이후 68원이 낮아진 1052원이 적용되면서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환율 하락과 민간소비 침체로 예산 대비 1조4000억원이 줄어든 5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2.0%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진 1.7%였다.

지난해 이자소득세는 저금리 기조 탓에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가 전년 2.88%에서 2.16%로 낮아지면서 1조원이 부족한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1조1000억원이 늘어난 8조1000억원, 근로소득세는 5000억원이 증가한 2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 또한 각각 1000억원과 2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경제성장률 3.9%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짰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로 잠정 집계되면서 전망치와 실질성장의 괴리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9년에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3%에 불과했다. 이어 2010년엔 4.0%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6.3%였다. 2011년에는 5.0%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7%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4.5% 성장을 내다봤으나 결과는 2.0%였다. 2013년에도 4.0%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다.

이같이 정부의 세수 판단 근거가 엇나가면서 3.8% 성장을 예견한 올해도 세수 부족은 명약관화할 전망이다. 내수소비와 생산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저금리, 저물가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조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주요 항목

국세 수입 실적
단위: 원, ( )는 예산대비 증감

177조 7000억 (2010년)	192조 4000억 (2011년)	203조 (2012년)	201조 9000억 (2013년)	205조 5000억 (2014년)
(+7조2000억)	(+4조8000억)	(-2조8000억)	(-8조5000억)	(-10조9000억)

세계 잉여금 단위: 원

7조8038억 (2010년)	6조4725억 (2011년)	-1484억 (2012년)	-7554억 (2013년)	-8000억 (2014년)

불용액 단위: 원

5조5344억 (2010년)	5조8024억 (2011년)	5조7221억 (2012년)	18조1357억 (2013년)	17조5000억 (2014년)

2014년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구 분	2014년 예산(B)	2014년 결산(C)	예산대비	예산대비 증감사유
총 국 세	216.5	205.5	-10.9	
일반회계	209.3	199.3	-9.9	
• 소 득 세	54.4	53.3	-1.1	• 취업자수 증가(+), 이자율 하락(-)
• 법 인 세	46	42.7	-3.3	• 법인 영업이익 하락(-)
• 부가가치세	58.5	57.1	-1.4	• 내수 부진 · 환율 하락(-)
• 관 세	10.6	8.7	-1.9	• 수입 부진 · 환율 하락(-)
• 기 타	39.8	37.5	-2.3	• 증권거래세 부진(-) 등
특별회계	7.2	6.2	-1.0	• 농특세 부진(-) 등

법인세 1.2조 ⬇… 근소세 3.4조 ⬆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탈탈?

대기업 감세 정책으로 기업 관련 세입은 줄고 국민이 내는 세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결국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는 제대로 손보지 못한 채 세금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어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했다. 법인세 징수액은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고,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서도 3조3000억원(-7.2%)이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5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취업자수가 1215만6000명으로 전년(1171만3000명) 대비 3.8% 늘었고,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률이 2.3%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근소세 징수 증가폭이 컸던 데는 2013년 세법 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약 1조원으로 추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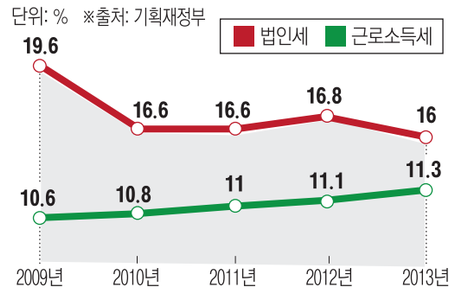
2013년부터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 개편이 이뤄짐으로써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변경된 세법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기획국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실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49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약 1조3600억원(1인당 27억원 수준)의 수입을 올렸으나 세무당국에는 7600억원(1인당 15억원)에 대해서만 신고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은 최소 110만명에 달해 '유리지갑' 직장인의 주머니만 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율은 2013년과 동일함에도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한 것은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법인세는 경기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서 법인세가 증가한 기업도 있고 감소한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근로소득세는 경기변동에 안정적이지만 법인세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2013년 이후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가 나빠 법인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감세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의 효과가 나타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된다면 법인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Best Korea Brands 2014 Interbrand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KCSI

당신의 자산,
성장자산의 비율은
몇%입니까?

지금 당신의 자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의 진보와 중국소비시장의 성장까지
세상의 변화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의 변화를 읽고 투자에 성장을 담아낸
삼성증권 성장자산 프로젝트

이제 당신의 자산에도
새로운 성장을 담아야 할 때입니다

성장의 가치를 읽어내다.

삼성증권 성장자산 프로젝트

저성장 시대에 높은 성장을 반영한
Top10 주식 포트폴리오
삼성증권 추천상품선정위원회에서 엄선한
국내외 유망 금융상품
선진/신흥시장에서 글로벌 성장기회를 찾는
글로벌 BEST 11



성장자산의 비율, 지금 확인해보십시오
■ 전화로! 자산관리상담센터 1577-4100 ■ 인터넷으로! samsung POP.com 금융상품몰 ■ 스마트폰으로! 삼성증권 mPOP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5004호(2014-07-31~2015-07-28) |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4-B1987호(2014-08-19~2015-07-09)

삼성증권 SAMSUNG

통상인력 친정복귀 코앞…통상업무 차질 빚을라

TPP·FTA·RECP 등 다자간 통상협상 마무리 추진
외교부 출신 복귀 앞두고 FTA업무도 산업부로 단일화
산업부 연장근무 신청 간부 없어 컨트롤타워 부재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전문인력 유출에 따른 통상업무 공백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자간 통상협상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지만 외교부 출신의 1세대 산업부 통상 라인의 친정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최경림 통상차관보, 김영무 FTA교섭국장, 김민철 FTA상품과장, 최진원 FTA서비스투자과장, 이호열 FTA무역규범과장, 홍영기 통상법무과장 등 6명의 산업부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난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외교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이관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13년 3월 산업부에 과장급 이상으로 13명의 외무공무원(고위 외무공무원 5명 포함)을 산업부로 파견했다. 이들은 원래 소속을 유지하고 있어 2년 후인 오는 3월까지 외교부로 복귀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산업부 연장근무를 신청한 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통상 업무의 핵심축이던 최 차관보와 5명의 국·과장의 빈자리 중 FTA 상품과·서비스투자과·무역규범은 자유직으로, 산업부 내 통상 인력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FTA 업무도 산업부로 단일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외교부 직원 복귀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자체 통상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왔으며 국제통상직 출신과 해외 대사관에 상무관으로 근무 중인 과장을 중심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실무선에서 충분한 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 내 '최고 통상맨'으로 불리는 이경식 가나 상무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의 안세진 오스트리아 상무관 등의 컴백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라인 인력 부재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이번에 산업부를 떠나는 6명은 작년 5건의 주요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통상정책을 책임지는 최 차관보 후임 인사는 고위 공무원단 인사여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인 통상법무과장 자리도 외교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중이지만 아직까지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분야 에이스로 꼽히며 한·중 FTA 협상에 있어 물밑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김 단장의 빈자리도 클 것이란 관측이다.

당장 상반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무역협상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자칫 협상의 원활한 추진이나 통상·교섭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올해도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외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웠지만 부처 간 통상 전문인력 유출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정부가 추진 중인 통상 협상(FTA 및 메가FTA)

자유무역협정(FTA)	진행 상황
한-콜롬비아	정식서명(2013.2.21)
한-중국	타결선언(2014.11.10)
한-뉴질랜드	타결선언(2014.11.15)
한-베트남	타결선언(2014.12.10)
한-인도네시아	7차협상(2014.2)
한중일	7차협상(2014.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후 참여 공식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7차협상(2014.2)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업무 부서

통상정책국 | 통상협력국 | 통상교섭실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출자 이력

2004년	**3100억원**
2012년	**1350억원**
2014년	정부와 필요 시 2014~2017년까지 **4000억원** 추가 출자 계획 발표
2015년	약 **2000억원** 출자 검토 중

주택금융公 2000억 출자 검토
가계부채 안정화 한은 '발권력' 동원 적절성 여부 논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가량을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정책금융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한은, 주금공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42조원 중 20조원을 대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본금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현재 45조~50조원의 은행 대출을 유동화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최대 20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금분할·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필요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미 한은 등과 자본금 확충 규모와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2014~2017년 주금공에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 때 3100억원, 2012년에는 추가로 1350억원을 출자했다. 주금공 납입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4316억원으로 이 중 정부가 68.9%(일반회계 61.5%·국민주택기금 7.4%)를 출자해 1대 주주이고 한은(31.1%)이 2대 주주다. 김태경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00억원의 추가 출자 여부를 검토 중이다"며 "한은이 금융안정 책무가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에 나설 수 있지만 발권력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정부의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특정한 형태의 목적에 자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자금 관련 부분 역시 금리조정 과정을 통해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가로 출자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은 주금공의 2대 주주로 출자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지킴이' 노란우산공제 부금 3조 돌파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 부금 3조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기념행사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김기문(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떡을 자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여의도만 쳐다보던 기재부
朴 비판에…'증세없는 복지' 초강수 선회하나

복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난함에 따라 증세 논의는 국회에서 먼저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박 대통령은 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직접적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하고 있다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뒤흔드는 정치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에 따라 증세가 최후의 수단이지만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기조를 보였던 기재부의 입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 논란, 복지 구조조정 등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정치권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가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기시되던 '증세'를 놓고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집권 여당과 야당의 공세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증세 없는 복지' 관련 발언

- 4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 — "국회가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
-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이뤄 달라"
- 8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 "국회 협조 안 되면 결론 어려워"

5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복지제도나 조세제도 모두 입법을 전제로 한다. 정치권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이뤄 주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증세 없는 복지'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먼저 수정할 뜻은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급기야 8일에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터키 이스탄불로 떠나기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증세' 문제에 대한 선(先)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재부의 기조가 다시 '증세 없는 복지'의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 부총리는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세 논란보다) 올해 정부 정책의 핵심은 구조개혁이고 노동시장 개혁에 먼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엘리 기자 ellee@

崔부총리 "금리인하보다 구조개혁"
'세계경제 회복 지연·저유가' 한국경제 극복과제로 꼽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하·인상보다는 경제가 안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두 번에 걸쳐 2.5%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라며 "재정지출도 2015년도 예산안이 5.5%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통화 정책상의 확장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금리 인하·인상보다는 경제가 안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저물가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로 그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저유가에 따른 위험 요소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석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만큼, 저유가의 수혜자임은 분명하다"면서 "산유국의 경제가 유가 하락으로 부진해지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에너지 기업 및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한다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나아질 좋은 기회로 저유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8.8%… 대기업보다 높아

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의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에서 연간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010년 기준)은 1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포인트 높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준에 의하면 중견기업의 판단 기준은 전자·금속·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다. 매출액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즉, 중견기업이 세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법인세를 내고, 대기업이 그 다음,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낸다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으로 각종 세액 공제를 받는 액수가 중견기업보다 많을 수 있다. 즉, 대기업의 세액공제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세 통계로만 보면 해당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이완구 인사청문회 '의혹의 벽' 넘을까

국회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은 증인·참고인(18명)을 불러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도 벌일 예정이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을 따지는 동시에 정책 역량 등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타워팰리스 재산 누락, 경기대 교수직 채용, 삼청교육대 관련 역할, 본인의 병역(보충역)과 차남의 병역면제,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12일 오전에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날 오후 본회의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설 기분 못내는 속 사정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 구정을 열흘 앞두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련된 명절선물세트 코너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쪽박’ 찬 F1, ‘위약금 폭탄’ 맞나

조직위 대회 취소에 英 FOM “계약위반”… 이달말 현지방문해 협상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F1 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올해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데 따른 위약금을 물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복수의 F1 조직위 관계자는 “FOM이 올해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F1 조직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F1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FOM은 F1 조직위가 지난해 11월까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위반을 할 경우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돼 있다. 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계약상 정해진 2년치 개최권료보다는 적은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1년치 개최권료는 4300만 달러(472억원)에 이른다.

F1 조직위 관계자들은 이달 말 FOM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FOM 관계자들과 첫 위약금 협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1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2012년, 2103년 F1 대회 때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신용장 미개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라는 FOM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4년 F1 대회는 F1 조직위와 FOM이 협의 하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다.

F1 조직위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안,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FOM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고성석 F1대회 조직위 본부장은 “재정을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위약금 (액수)에 대한 (F1 조직위와 FOM 간에) 차이가 클 때에는 무대응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그간 F1대회 개최로 수천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 경주장 건설비 등으로 발생한 지방채만 2900여원, 지난 4년간 발생한 누적적자가 1900여억원에 달해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될 경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여론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혜은 기자 euna@

한국 협력사에 ‘감질’? 알리바바닷컴 조사

영업비밀·인력 빼돌린 후 계약해지
檢, 亞 총괄 부사장 배임혐의 소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부사장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주 알리바바닷컴 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티모시 륭 부사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협력업체인 E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알리바바닷컴 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티모시 륭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티모시 륭 부사장은 알리바바닷컴 한국 대표 배모(47)씨와 E사 간부 유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E사의 고객데이터와 영업비밀, 핵심인력을 빼돌린 뒤 일방적으로 E사와 계약을 해지해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E사의 주장이다.

E사는 알리바바닷컴이 E사의 직원이던 유씨 등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제안한 뒤 이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업체의 설립비용 일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닷컴과 한국 내 판매대리점 사업을 해온 E사는 2012년 상반기 전 세계 대리점 중 실적 1위, 흑자 전환 등 성과를 거뒀지만 같은해 9월 알리바바닷컴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국내 협력업체와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사업을 가로챈 혐의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 배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배씨와 함께 따로 회사를 차린 유모(40)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사는 “알리바바닷컴이 E사의 직원이던 유씨 등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제안한 뒤 이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업체의 설립비용 일체도 지원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E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6개월간 아웃소싱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알리바바닷컴과 한국 내 판매대리점 사업을 해온 E사는 2012년 상반기 전 세계 대리점 중 실적 1위, 흑자 전환 등 성과를 거뒀지만 같은해 9월 알리바바닷컴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좌영길 기자 jyg97@

‘사채왕 뒷돈’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징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지금까지 현직 판사가 정직 1년을 받은 전례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최 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진호(61·수감 중)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좌영길 기자 jyg97@

“내 이름 쓰지마!”… 발톱 세운 ‘캣츠’

법원 “이름 자체가 뮤지컬 상표”… ‘어린이 캣츠’ 사용금지 판결



유명 뮤지컬 ‘캣츠’는 제목 자체가 뮤지컬 상표 역할을 하므로, 다른 유사 공연에서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장기간 공연을 이어오던 ‘어린이 캣츠’ 는 ‘캣츠’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뮤지컬 캣츠의 국내 독점 공연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뮤지컬을 제작·공연한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뮤지컬 공연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뮤지컬 CATS’는 적어도 2003년부터는 그 저작권자 및 그로부터 정당하게 공연 허락을 받은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영어 또는 국어로 제작·공연돼 왔다”며 “‘CATS’는 단순히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앤컴퍼니는 2003년 뮤지컬 ‘캣츠’의 공연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독점 공연권을 얻었다. 유씨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21개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의 뮤지컬을 제작·공연해왔고, 설앤컴퍼니는 “캣츠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이미 회사가 가졌는데도 유씨가 영업표지인 ‘캣츠’ 표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좌영길 기자 jyg97@

이 주의 주요 재판

‘땅콩회항’ 조현아, 모레 선고공판

‘땅콩 회항’ 논란으로 재판을 받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론이 12일 나온다. 또 1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벌인 KT ENS 간부 등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도 같은 날 나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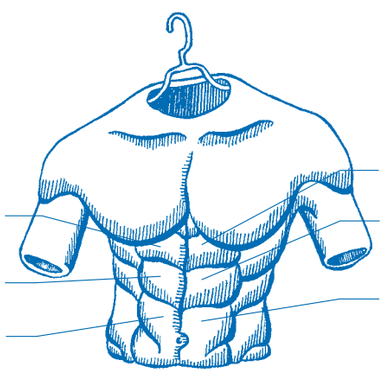
◇‘땅콩회항’ 처벌은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항공기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조원대 사기대출, 2심 결과는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KT ENS사기대출 사건을 주도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와 KT ENS 부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6곳의 은행을 상대로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업계 최고수준 신용등급 AA+
(2014년 6월, 한기평·한신정·나신평 기준)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1067호(2014.3.3~2015.2.28)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46-1075호(2014.12.31~2015.2.28)



탄탄한 노후를 위한
연금 식스팩

절세와 노후준비를 가능케하는
놀라운 금융 식스팩!

Think you very much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을 고를 때 따져야 할 6가지 혜택
세액공제 / 다양한 펀드분산투자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 추구 / 중도 인출 가능
과세 이연에 따른 수익의 재투자 효과 / 연금소득세 인하 / 분리과세 한도 상향

※KDB대우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개개인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을 가입(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KDB대우증권
고 객 센 터 | 1588-3322

젊은피 수혈한 하나… 신한 '포스트 서진원'은



김병호 신임 하나은행장이 10일 서울 청진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 6대 하나은행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직무대행 꼬리표 뗀 김병호
1961년생 최연소 은행장
'외환銀 통합' 무거운 짐

서 행장 와병에 연임 불가능
김형진·위성호·이성락 차기 유력후보로 거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에 급제동이 걸린 하나금융이 통합 은행장 선임을 위해 미뤄 놓았던 하나은행장을 선임했다. 은행 통합, 수익 제고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젊은피를 수혈해 추진 동력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투병중인 서진원 행장의 현업복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24일 자회사경영발전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차기 행장 선출을 논의하기로 한다.

하나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김병호 부행장을 신임 하나은행장에 선임했다. 신임 김 행장은 1961년생으로 현직 은행장 중에서 가장 젊다.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이 57년생이고, 권선주 기업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56년생,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과 박종복 한국SC은행장이 55년생,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51년생이다.

60년대 젊은 행장의 선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김 행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오는 6월 말까지 중단된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이 김 행장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다.

법원 지난 4일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언제든지 통합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김 행장이 노조와의 관계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노조와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이 조직 쇄신과 합병 새판짜기에 돌입하면서 김 행장의 리더십도 중요시 되고 있다.

무엇보다 조기 통합에 커다란 암초가 될 결정이 내려진 만큼, 통합은행장 경쟁에서도 두 은행장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르면 이달 중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와병에 따른 차기 신한은행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오는 24일 자경위를 열고 차기 행장 선출 작업에 돌입한다. 자경위는 한동우 신한 회장과 함께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앞서 한 회장은 "서 행장을 (연임을 못하는 것에 대해) 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차기 행장 후보로 김형진 신한지주 부사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팍팍해진 살림살이 작년 보험해약 급증

20조 규모… 54%나 늘어

지난해 보험해약 금액이 2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황으로 가계의 마지막 보루인 보험을 해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가능하면 생계형 필수보험은 유지하고, 감액·실효후 부활 등 해약 이외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금소연은 지난해 보험해약 금액이 20조9178억원으로, 전년보다 54.2%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연은 보험협회의 2014년 1~10월 통계를 인용해 생보사의 보험해지 건수는 350만건으로, 해약 금액은 14조241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년 동기 267만건, 9조4408억원 대비 각각 30.8%, 50.9% 늘어난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도 지난해 9월 기준 해지환급금이 6조6763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1277억원 대비 61.7% 증가했다.
강구귀 기자 kkk@

복합할부 수수료 갈등 중소 캐피탈사에 '불똥'

신용공여기간 한달로 연장하면 기존보다 0.2% 추가 비용 발생
카드사, 캐피탈에 85% 부담전가

카드사들이 현대차와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의 수수료 인하 압박 근거인 1~3일의 짧은 신용공여기간을 한달로 늘리며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출시를 준비하는 복합할부금융의 수수료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캐피탈사간 마찰을 빚고 있어 출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신용공여 기간이 30일로 늘린 새로운 복합할부 상품 출시를 위해 7개 캐피탈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 외에도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도 새로운 복합할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카드복합할부는 신용카드로 차를 구매할 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대부분을 캐피털사로 이전해 할부 대출금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판매사들이 너무 높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물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자 카드사들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늘린 새로운 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것이다.

문제는 신용공여기간을 기존 1~3일에서 한달로 늘린 만큼 캐피탈사들은 0.2%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0.2%의 추가비용 중 85%인 0.17%를 캐피탈사가 부담하고 15% 수준인 0.03%만 카드사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캐피탈사에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캐피탈사 관계자는 "현대차와의 갈등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있지만 추가비용을 전가하려 하고있는 모양새"라며 "기존 복합할부 상품도 마진이 적었지만 추가비용이 더 지출되면 수익에 타격을 입을것이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새로운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에 타격을 받는 곳은 캐피탈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홍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신용공여기간이 증가하면 결국 카드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카드-캐피탈 사이의 수수료 배분구조도 재조정될 수 밖에 없어 제휴 여전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혁신성 최우수 신한銀 축하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9일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서울 가산동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은행 혁신성 평가는 전세계적인 혁신전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현장 직원들이 금융혁신에 가장 중요한 일원이고 첨병이라는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뱃돈 신권전쟁

내일부터 은행서 교환…1인당 한도제한
1만원권 경우 농협은 20장·국민은 10장

설 명절을 앞두고 신권 전쟁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이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신권교환 액수를 제한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각 지점은 이르면 11일부터 설 명절에 세뱃돈으로 쓰일 신권을 고객들에게 배부한다.

일부 지점에서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신권을 나눠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출입문이나 현금입출금기(ATM) 주변에 붙여놨다.

신권을 확보하려는 고객들은 서둘러야 한다. 신권이 부족해 은행마다 신권 교환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각 지점이 본사로 부터 확보하는 신권 물량은 1만원권은 2000만원, 5만원권은 1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농협은행은 지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1만원권은 1인당 20만원, 5만원권은 50만원의 한도를 둘 예정이다.

국내 최대의 영업망을 가진 국민은행 일부 지점은 1인당 한도를 1만원권 10장, 5만원권 4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뱃돈으로 많이 사용되는 1만원권 부족 현상은 한은의 화폐 교환 창구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은 전북본부 창구는 평소 1만원권을 1인당 100만원까지 교환해줬으나 지난 6일부터 5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고객들의 신권 교환을 자제시키기 위해 한은이 제작한'세뱃돈, 깨끗한 돈이면 충분합니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우리종금 대표이사에 정기화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지난 6일 주주총와 이사회를 열고 정기화〈사진〉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정 대표는 우리은행 전략기획팀 부장과 지주사 전략기획부장, 은행 업무지원단 상무, HR본부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주금공 상임이사에 권인원



주택금융공사는 권인원〈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상임이사는 금융감독원 업무총괄 부원장보를 지내다 지난달 퇴임했다.

권 상임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15년간 근무했으며,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3년 5월 부원장보로 승진한 권 상임이사는 지난해 4월 업무총괄 담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달 중순까지 근무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쌍용자동차

My 1st SUV

다 른 것 은 전 부
시 시 해 져 버 렸 다
티 볼 리 를 본 순 간 부 터

TIVOLI 탄생

시선을 사로잡는 감각적 어반 다이나믹 스타일과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여유롭고 스마트한 스페이스,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견고한 안전 시스템까지 –
그래서 난, 첫차부터 엣지있게 TIVO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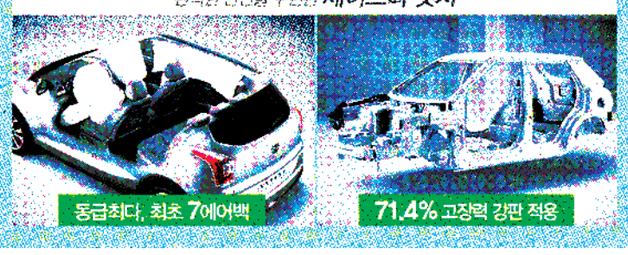


TIVOLI 런칭 이벤트

[EVENT1] TIVOLI 특별 구매 혜택 (택1) ※1인 1대 고객에 한함
1.선수율 Zero/5.9% 할부이자/72개월
2.월 할부금 최저 20만원대 (선수율 15%/유예율 30%/5.9% 할부이자/60개월)

[EVENT2] 2채널 블랙박스 증정
※2채널 블랙박스는 상기 할부조건 이용고객(36개월 이상, 1천만원 이상)에 한하여 증정

TIVOLI 엣지 포인트3

완벽한 안전을 구현한 세이프티 엣지

동급최다, 최초 7에어백
71.4% 고장력 강판 적용

공간을 극대화한 스페이스 엣지

동급최대 적재공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스타일 엣지


TIVOLI

쌍용자동차와 함께 할 판매대리점 대표님을 모십니다

운영형태	위탁판매대리점
자원자격	자동차영업 및 영업관리 경험자
접수마감	2015년 2월 28일
문의 및 접수	02-3469-2161

지역	
서울	동작구, 구로구, 성북구, 종로구
인천	남구
경기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파주시
경남	진주시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080-500-5582 www.smotor.com 참조

총수들 설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구 회장 현안 해법 모색
구본무 회장 '시장선도' 구상
허창수 회장 전경련 위상찾기
김승연 회장 경쟁력강화 고민

자택서 조용한 명절 보낼 듯

재계 총수들이 올해 '조용한' 설 명절을 보낸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총수가 올해 설 연휴 동안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면서 경영구상을 할 예정이다.

정몽구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산적한 경영 현안의 해법을 모색한다. 현대차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현대차가 지난해 90조원에 육박한 사상 최대의 매출에도 4년 만에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내는 등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낙찰 받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이라는 그룹 최대의 역점 사업을 마주하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경영 구상에 나선다. LG가는 신정을 쇠기 때문에 구 회장은 이번 설에 별다른 일정을 갖지 않는다. 구 회장은 경영방침인 '시장 선도'를 위한 다양한 구상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

허창수 회장은 서울 이촌동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설 명절을 맞는다. 허 회장은 3연임을 앞두고 전국경제연합회의 옛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회장도 서울 가회동 자택에서 가족과 차례를 지내며 휴식을 취한다. 2년 동안 경영 공백을 깨고 지난해 말 복귀한 김 회장은 '첫 작품'인 삼성그룹 방산·화학부문 4개 계열사 인수 이후 그룹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숙고할 예정이다.

이 외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대부분의 총수도 자택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경영 구상에 몰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한 이건희 회장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의 퇴원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 명절 이 회장 곁은 여느 때처럼 부인 홍라희 여사와 재용·부진·서현 삼남매가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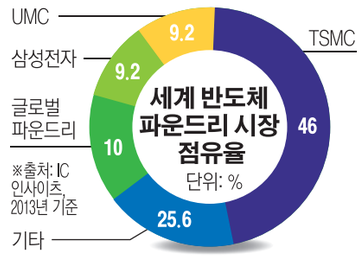
최태원 회장은 수감 생활 중에 설을 맞는다. 정·재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지만, 최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만큼 최 회장은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옥중에서 세 번의 설을 보내게 됐다.

장효진·조남호 기자 js62@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부활 암초
TSMC '기술유출' 대법판결 임박

〈대만 파운드리 업체〉

대만 법원 2심까지 TSMC '손'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삼성전자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10일 대만 정보기술(IT) 매체 EE타임즈에 따르면 TSMC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유출 관련 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TSMC는 지난 2011년 자사 출신 량몽송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기술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TSMC는 량 CTO가 경쟁사 이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14나노 핀펫'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량 CTO의 기술유출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

량 CTO는 2009년 TSMC를 퇴직하고 경쟁사 재취업 금지기간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에 입사해 현재까지 CTO직을 맡고 있다.

업계는 TSMC의 소송 제기가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2013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46%로 1위, 글로벌 파운드리가 10%의 점유율로 2위, 삼성전자는 9.2%의 점유율로 UMC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미세공정 기술력을 토대로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출시될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7(가칭)'의 'A9' 프로세서 생산을 도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만 법원이 2심까지의 판결에서 TSMC 승소 판결을 내린 상황인 만큼, 삼성전자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량 CTO는 적법한 절차로 영입했다"며 "이번 소송은 개인과 직전 회사 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업그레이드된 삼성전자 프리미엄 냉장고



삼성전자가 10일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을 비롯한 '지펠 T9000' , '지펠 푸드쇼케이스' 등 2015년형 프리미엄 냉장고 신모델 20종을 출시했다. 2015년형 셰프컬렉션은 기존보다 높이를 7cm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 2015년형 지펠 T9000은 냉장실 안쪽 면에 메탈 소재를 적용해 냉기 손실을 줄이고 온도 변화를 줄였다.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870~1000ℓ 용량에 출고가는 549만~728만원이며, 지펠 T9000은 845~901ℓ 용량에 출고가 408만~459만원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엔씨, 넥슨 요구 일부 수용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엔씨소프트측이 넥슨의 경영참여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했으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따라 양사간의 경영권 분쟁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지분싸움 등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넥슨의 주주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전날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당초 넥슨은 주주제안에 대한 답변을 10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엔씨소프트는 넥슨측이 주주제안으로 요구한 △협업 제안 △전자투표제 도입 △실질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CEO

두산인프라코어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 전문가에서 엔지니어 출신으로 교체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손동연 기술본부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신임 손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글로벌 기술경쟁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국시장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용성 대표이사 사장이 물러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대표는 M&A 전문가로 두산그룹과 인프라코어의 M&A를 총지휘했다.

이 회사는 주력 사업인 건설기계부문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초 중국 장쑤성 굴착기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는 국내 사업부문에서 1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김범근 기자 nova@

KT '기가팍팍' 광고 왜 안나오지?

마우리족 희화 비난에 중단

KT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진행한 '기가팍팍'광고가 온에어 3개월 만인 지난 12월 말께 돌연 중단됐다. 뉴질랜드 대사관이 자국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출연하는 KT의 기가인터넷 광고에 대해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0일 KT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뉴질랜드 대사관은 자국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출연해 민속춤인 '하카(HAKA)'를 재미있게 표현한 KT 광고에 대해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카는 뉴질랜드의 신성한 춤이자 전통의식인데 이를 희화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KT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건장한 남성 10명이 출연해 '기가팍팍, 기가기가!'를 외치며 하카댄스를 응용한 춤을 추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가(GIGA) 산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 광고는 'KT하면 기가인터넷'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업계와 언론에서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출연한 남성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카를 추는 전문 댄서들이다.

하지만 마오리족이 출연하는 이 광고는 뉴질랜드 대사관 측에서 자국의 신성한 의식을 희화하는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하카댄스는 마오리족 용사들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 승리를 기원하는 신성한 춤으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만큼 인기가 높은 뉴질랜드 럭비대표팀(All Blacks)이 경기 전에 이 춤을 추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KT 측은 "뉴질랜드 대사관 관계자와 KT 광고국 관계자가 11월 초쯤 만나서 광고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광고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전문 댄서들과 계약이 끝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성제 기자 psj@

현대百 면세점 사업 뛰어든다

그룹 내 별도법인 설립… 서울시내 시작으로 공항·해외점 확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면세점 사업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국내 유통 '빅3'인 현대백화점그룹의 가세에 따라 롯데와 신라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앞으로 그룹 내 별도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회장은 면세점 자체 성장성 뿐만 아니라 백화점·홈쇼핑 등 그룹 주력사업과의 시너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면세점 사업을 그룹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공항 면세점과 해외 면세점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3년 전부터 '신규사업추진TF'을 구성해 면세점 사업 준비를 착수했으며 국내 대형 면세점 출신의 마케팅전략 및 영업총괄 임원을 최근 영입하는 등,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매장 구성과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전문관을 콘셉트로 하는 대규모 면세점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상무는 "백화점 등에서 축적된 유통 경험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신동빈 롯데회장이 9일 롯데월드타워 97층 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취임 20년만에 기자실 찾은 신동빈 회장

"제2롯데 안전성 주 단위 점검"

9일 롯데월드타워&몰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안전상황을 점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몰에 마련된 기자실을 직접 찾아 화제다.

이날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1997년 부회장 취임 이후 기자들을 먼저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제2롯데월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신 회장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 안전문제와 입점업체 영업부진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으며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기자들은 만나 "앞으로도 한 주 단위로 불시에 방문할 계획이며 안전을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몰 입점 상인들 피해 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신 회장은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오픈 100일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화관과 아쿠아리움이 정상화되면 매출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누수와 진동으로 영업이 중단된 아쿠아리움 및 시네마 재개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가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롯데그룹의 실적 저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하반기가 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며 "정부의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4%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중소기업 대통령' 中企중앙회장 선거 5파전

김용구 전 회장·서병문 이사장 등 공식 선거운동 돌입… 27일 투표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전이 공식화됐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최종 5인의 후보자들도 오는 27일 투표일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한국아스콘연합회장, 박주봉 한국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 서병문 한국주물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조합 이사장 등 차기 회장 선거 최종 후보자(가나다순) 5명은 지난 8일 오후 10시 후보자 기호를 추첨 방식으로 확정했다.

기호가 확정됨에 따라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도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 후보자들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부착, 홍보 인쇄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기호 1번인 서병문 이사장은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비엠금속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상임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고, 불공정거래행위인 경제3불(不)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호 2번 박성택 후보는 중기중앙회 이사 겸 산하 대표이사로, 선진국형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분야 선진화 기반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3번 이재광 후보는 광명전기 대표이사와 함께 중기중앙회 부회장,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협동조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호 4번 박주봉 후보 역시 중기중앙회 부회장으로, 대주이엔티 대표이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자랑스런 중소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서울지검 범죄예방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주봉 후보는 특히 불합리한 3대 수수료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기호 5번 김용구 후보는 전 중기중앙회장 출신으로 자유선진당을 통해 제18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신동 대표이사인 김용구 후보는 중기중앙회 내부 조직을 정비해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후보자도 5명이어서 향후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움직임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김정유 기자 thec98@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유통업계 '사이즈 전쟁'

불황 여파 합리적인 소비자 많아져
대용량 요거트·화장품 등 수요 증가

1~2인 가구 늘어 다품종 소량 소비
가격부담 낮춘 간편조리식 등 인기
미니와인·초소용량 뷰티 아이템도



식품, 주류, 화장품 등 유통업계 전반에서 사이즈 전쟁이 뜨겁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용량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램(g)당 가격까지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한 대용량 제품이 쏟아지면서 '대형과 미니'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가격경쟁력 있는 대용량 '짐승 제품' 인기 ↑ = 대용량 제품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덕분이다. 대용량 제품은 같은 브랜드의 일반 제품보다 용량이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짐승 제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양은 많지만 가격은 100g당 환산 기준으로 일반 제품보다 평균 20~30%가량 싼 것이 특징이다.

유제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대용량 요거트만 나홀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일유업이 2013년 5월 출시한 대용량 플레인 요거트 '매일바이오 플레인'은 지난해 14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약 160% 성장한 3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매일바이오 플레인이 대용량(900g)이라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고, 어떤 메뉴와도 부담 없이 어우러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대용량 제품도 인기다. 플레인 요거트 제품 '밀크100'은 1인용 제품(85g)의 10배가 넘는 870g으로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연매출 25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는 100억~150억원이다.

화장품 시장에서도 대용량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이나 헤어, 바디 제품의 경우 재구매 주기가 더욱 짧다. 15년 연속 미국 유기농 바디케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닥터브로너스의 '매직 솝'은 1ℓ에 육박하는 950㎖ 초대용량 사이즈로 이런 번거로움을 줄였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불황에 따른 합리적인 가치 소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용량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비오템도 기존 제품보다 최소 1.6배, 많게는 2.5배 가량 커진 대용량 제품을 선보였다. 보습 부문 베스트 셀러인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 '블루 테라피 세럼 인 오일', '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3종 대용량 제품을 겨울철 한시적으로 판매 중이다.

LG생활건강의 남성용 화장품 보닌은 기존 45㎖ 용량의 두 배가 넘는 100㎖ 대용량의 '에너자이징 워터 젤 크림'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한 지 보름 만에 올리브영과 왓슨스에서 1000개이상 팔렸다.

◇용량 줄여 가격 부담 낮췄다… 1인족 안성맞춤 = 1~2인 가구 증가로 소용량 제품의 인기도 뜨겁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인 가구는 2013년 말 기준 962만 가구로, 전체 1821만 가구의 52.8%를 차지해 과반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간편조리식품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간편조리식품 카테고리 내에서 1~2인 가구가 한 끼를 해결하기에 적당한 소용량 간편식이 2012년 392종에서 2013년 486종, 2014년 602종으로 2년 새 53.6%나 증가했다. 매출도 매년 약 30%씩 늘며 매출 비중이 2012년 12.5%, 2013년 15.8%, 2014년 20.2%를 기록하고 있다. 간편조리식품 중에서는 컵밥의 인기가 높다. 업계에서는 2013년 기준 전체 700억~800억원대 규모의 컵밥 시장이 향후 10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류 시장에서도 소용량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양인터내셔날은 혼자 마시기에 부담이 없도록 기존 제품보다 절반 넘게 용량을 줄인 '미니 와인', '포켓사이즈 보드카'를 잇따라 출시했다. 하이트진로는 휴대가 간편한 소용량 캔와인 '와인스타(Wine Star)'를, 홈플러스는 기존 와인 용량을 4분의 1로 줄인 187㎖ 심플리 와인을 판매 중이다. 롯데주류 '처음처럼 순한 쿨'은 이동하면서 혹은 얼려서도 먹을 수 있도록 작은 크기 주머니에 돌림형 마개를 달았다.

초소용량 뷰티 아이템도 눈에 띈다. 화장품 브랜드 맥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간편한 30㎖ 내외의 '사이즈 투 고' 컬렉션을 선보였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해 스킨 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전반을 30㎖ 용량에 맞게 기획했다.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다품종 소량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편의점뿐 아니라 대용량 묶음 판매의 원류였던 대형마트에서도 소용량 상품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 트렌드에 맞춘 제품 개발이 업계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선애 기자 Lsa@

男좋은 선물 1위 '몽블랑'

밸런타인데인 앞둔 온라인몰
남성명품 매출 두배이상 '껑충'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온라인몰에서 남성 명품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온라인몰 11번가에 따르면 남성 수입명품 매출은 올 들어(1월 1~2월 7일) 전년보다 130% 증가했다. 또한 수입명품 내 남성 수입 명품의 판매 비중은 2013년 25%에서 2014년 48%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11번가를 통해 주로 구매하는 남성 명품 품목은 지갑 및 벨트(38%), 의류(20%), 가방(9%), 넥타이 등 기타 잡화(33%) 순이다.

지난해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 남성 브랜드 1위는 '몽블랑'(27%)이 차지했다. 이어 △폴스미스(19%) △페라가모(18%) △디스퀘어드(15%) △돌체앤가바나(7%)가 뒤를 이었다.

11번가 현효경 수입명품MD는 "최근 톰브라운이나 스톤아일랜드 등 트렌디한 명품 의류 브랜드가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다"며 "밸런타인데이 등의 기념일을 앞두고 남성 명품지갑이나 벨트 등의 소품류를 사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번가는 밸런타인데이 및 졸업식 선물 시즌을 맞아 '프레스티지 명품 기획전'을 열고 지갑, 신발, 의류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은 몽블랑, 폴스미스, 페레가모 등 20여개 브랜드의 남녀 인기 아이템을 총망라해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윤철규 기자 yoonck@

"컬러 수입과일로 설 선물하세요"



홈플러스는 전국 140개 점포에서 이색 선물세트로 컬러 수입과일 세트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렌지와 자몽, 메로골드를 각각 4개씩 구성해 맛과 향은 물론 화려한 색감이 특징이다. 가격은 2만5000원. 9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컬러 수입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심 한우' 통했다

소고기 세트 매출 14.9% 늘어…사육단계부터 직접 관리

'진심 한우 선물세트'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롯데마트는 '진심 한우'의 판매 호조로 설 연휴를 앞두고 소고기 선물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10일간 설 선물세트 본 판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소고기 선물세트 매출이 1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신선 선물세트 중 매출이 상승한 품목은 소고기 선물세트가 유일하다.

'진심 한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300여곳 축산농가의 1등급 이상 한우만을 엄선한 프리미엄급 선물세트다. 롯데마트가 직접 사육 단계부터 관여한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진심 한우'는 본 판매 10일간 소고기 선물세트 매출 중 22.9%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힘입어 냉장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 대비 19.2% 늘었다. 롯데마트 측은 '진심 한우'의 인기 요인에 대해 최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시중에서 판매되는 브랜드 한우 선물세트에 비해 가격이 15~20%가량 저렴하고, 원하는 부위를 매장에서 즉석 맞춤 제작해 주는 점도 인기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리산 진심 한우 냉장 맞춤세트. 사진제공 롯데마트

박성민 롯데마트 축산CMD(선임상품기획자)는 "명절 소고기 선물세트 매출의 60%가량이 냉장 선물세트인 것을 감안할 때, 설에 임박할수록 '진심 한우'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설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8.9% 늘었으며, 선물세트 평균 구매단가도 지난해 대비 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애 기자 Lsa@



맞춤 설계·계약금 정액제…2차 가실래요?

건설사들, 1차 여세 몰아 '시리즈' 분양… 고객 서비스 지향
반도 '동탄 아이비파크' GS '한강센트럴자이' 등 완판 노려

건설업계가 본격적 분양철을 앞두고 시리즈 단지의 흥행을 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앞선 단지 공급에서와 같이 다양한 평면 제공은 물론 알파룸 등 옵션을 통해 구조 변형이 가능한 제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정액제를 올해 분양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리즈 분양을 예정 중인 업체는 반도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에서 꾸준한 분양 실적을 쌓아 왔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도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김포한강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에서 분양에 나선다. 분양 성공의 열쇠는 수요자가 쥐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이전 단지 분양 시기부터 적용해 온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동탄신도시에서 마지막 시리즈 분양에 나서는 반도건설은 모든 서비스를 강구해 완판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 건설사는 다음달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을,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와 4차를 각각 분양한다. 특히 동탄지역 분양 물량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평면을 제공하는 한편 가변형 벽체 구조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 4차 분양 때 계약금 정액제(1000만원)를 실시해 고객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줬다.

GS건설은 올 상반기 김포한강신도시와 하남미사강변도시에서 각각 한강센트럴자이 2차, 미사강변리버뷰자이를 공급한다. 회사 측은 1차 때 선보인 알파룸 제공 등 고객 맞춤 서비스는 계속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계약금도 적게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수요자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계약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가격의 20%를 내기로 했는데, 이후 10%대로 낮췄다. 하지만 요즘엔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다.

호반건설도 가격 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원 호매실호반베르디움 2단지 공급 시 1단지와 마찬가지로 중도금 무이자와 계약금 정액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리즈 분양을 준비 중인 대우건설도 각종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설사는 분양 물량이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만큼 분양 성공을 위해 고객 서비스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부 설계 변경 등 다양한 마케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분양 성공을 위해 인기가 덜한 지역에는 더 많은 마케팅과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올 상반기 공급 예정 주요 후속분양 단지 ※출처: 각 사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	분양 시기	시공사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545	59~96	3월	반도건설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	532	59~96	3월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662	58~84	3월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4차	461	74~84	5월	
한강센트럴자이 2차	598	84, 100	2월	GS건설
미사강변리버뷰자이	555	91~132	3월	
시흥 배곧신도시호반베르디움 3차	1647	65, 84	2월	호반건설
수원 호매실호반베르디움2단지	1100	84	2월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	832	74, 84	3월	대우건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630	84	4월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가칭)	1730	62~99	5월	
충주 3차 푸르지오(가칭)	528	84	6월	

"900여명 희망퇴직" 술렁이는 삼성물산

업계 불황… 지난해 당기순손실
이번주중 구조조정 마무리 계획
정년연장에 선제적 감축 관측도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900여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 900여명에게 희망퇴직 대상자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사실상 권고사직 형태로,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퇴직금으로 1인당 1억9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주 중 인력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 대상 조직은 건축과 토목 관련 부서로 향후 관리본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룹 내 건설계열사의 인력 재배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최근 삼성물산 직원이 제일모직 건설사업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1위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에 대한 선제조치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늘리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올해 인원을 줄여 조직 슬림화를 이뤄야 향후 인력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건설업계의 불황이 여전히 진행형인 점이 꼽힌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해외 시장의 저가 수주 여파와 국내에서는 과징금 판결이 이어지며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나 인력 구조조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구조조정과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내달 '문성파크자이' 1138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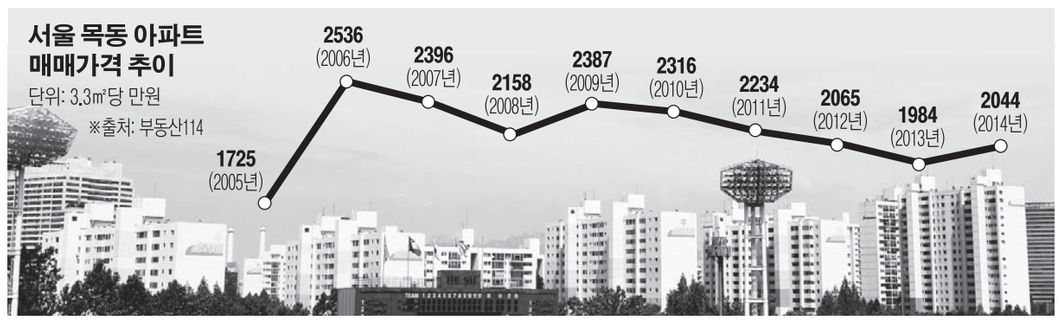
GS건설은 오는 3월 경북 구미시 문성2지구 1블록에 1롯트에 총 1138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 '문성파크자이'를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27층 총 18개동, 전용면적 기준 △74㎡ 246가구 △84㎡ 743가구 △100㎡ 149가구 등 총 1138가구로 구성된다.

문성파크자이가 들어서는 문성2지구는 구미시의 중심권과 가까워 구미시청, 구미역, 대형마트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적당한 거리가 있고, 풍부한 자연 및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 쾌적성이 높다. 현재 구미시에 조성된 '구미 1·2·3·4산업단지'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도레이첨단소재, 아사히초자화인 등 대형 연구개발(R&D)기업들이 입주해 가동 중에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원기회복'한 목동

리모델링 증축 허용·재건축 연한 단축 규제 완화
1년 만에 매매가격 3.3㎡당 2000만원대 재돌파



서울 목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2000만원대를 회복했다. 봄을 앞두고 이 일대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여부가 관심사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목동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3㎡당 1900만원대로 추락한 이후 1년 만에 3.3㎡당 2044만원을 기록했다.

목동 아파트는 2006년 3.3㎡당 2536만원을 찍은 이후 7년 동안 200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1984만원으로 저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2000만원대를 다시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리모델링 증축 허용 △재건축연한 단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2017년까지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가능 △ 재건축조합원 최대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목동 지역 노후 아파트에 대한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9·1대책 발표 이후에는 목동 일대의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2019~2022년에나 가능했던 재건축 추진이 이르면 2016년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현재 신시가지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사와 사업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총 2만6634만 가구 규모의 신시가지가 재건축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 5층 이하의 저층 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많아 재건축의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현대건설, 사우디서 1374억 규모 송전선로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발주한 1억2600만 달러(약 1374억) 규모의 380kV 송전선로 신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올해 첫 수주 성과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 지역에 총 연장 약 249㎞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설계·구매·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한 일괄 도급 공사다. 공기는 24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송·변전 시장에서 70여건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현재 사우디에서 송전선 및 변전소 분야 총 13건(14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23년까지 40GW의 발전용량 증설과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약 16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번에 수주한 공사를 계기로 향후 송·변전 공사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건설한 사우디 카심 마디나 380kV 송전선로 공사 현장 모습.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사우디에서 수행 중인 유사 공사의 우수한 수행 능력 및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현재까지 해외에서 총 156건(80억 달러 규모)의 송·변전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작년 말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송전공사 수행부문에 대한 감사패를 받는 등 송·변전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건설업체의 명성을 이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푸르미미 지음
| 210쪽 | 13,000원

돈 한 푼 안 들이고
20평대에서 50평대로 갈아타기

3년 안에 부자 되는 똑똑한 집테크
똑똑하게 굴린 집 한 채로 인생 역전에 도전한다!

가계부를 쓰면서 문화생활비, 학원비
심지어 부모님 용돈을 줄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절약'이 아닌 '투자'다!

당신이 속고 있었던 진짜 재테크 이야기

1.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2. 부도난 아파트가 돈이 된다
3. 부동산 상승기에는 다음에 살 아파트를 미리 사라
4. 투자의 승패는 사는 순간 결정 난다
5. 이사하는 횟수만큼 부도 증가한다
6. 돈은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나가는 것이다
7. 대출은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8. 지금 당장 가계부를 찢어라
9. 분산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10. 같은 곳에 투자한다고 리스크가 같은 것은 아니다

무한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HSBC PB사업부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 공개 파문

검은돈 1000억 달러… 부유층 탈세 방조

탐사보도언론인협회 203개국 10만여 명단 노출
마약상·테러 연루자·연예인·기업 대표 등 포함
한국도 20계좌 관리… 스위스 은행비밀주의 타격

HSBC홀딩스 산하 프라이빗뱅킹(PB) 부문의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8일(현지시간) HSBC PB 사업부가 지난 2007년 이후 운용해온 비밀계좌의 규모와 고객 등 세부정보를 공개했다. HSBC는 부유층 고객들의 대규모 탈세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HSBC는 전 세계 203개국의 10만여 개인과 법인의 계좌를 통해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관리해왔다.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일부 계좌주의 이름이 공개됐으나 10만여 전체 고객 명단이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SBC의 고객 명단에는 전세계 왕실과 마약상, 테러 연루자, 각국 대사와 유명 연예인, 기업 대표, 운동선수 등이 포함됐다. 아이티의 독재자였던 장 클로드 뒤발리에와 인터폴의 지명수배자인 케네스 리 악셀로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겐나디 팀첸코 볼가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축구스타 디에고 포를란과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찬 슬레이터, 슈퍼모델 엘 맥퍼슨도 HSBC의 비밀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상으로는 스위스가 31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영국(217억 달러), 베네수엘라(147억 달러), 미국(133억 달러), 프랑스(125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8일(현지시간) HSBC홀딩스의 스위스 PB부문이 운용하는 고객 비밀계좌 정보를 폭로했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HSBC PB사업부 건물. 블룸버그

고객별로도 스위스(1만1235곳)가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프랑스(9187곳), 영국(8844곳), 브라질(8667곳), 이탈리아(7499곳) 순이었다.

한국은 20개의 계좌에서 약 2130만 달러(약 232억원)가 관리되고 있었다. ICIJ는 한국 고객 중 가장 많은 돈을 예치한 곳은 그 규모가 104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고 전했다.

ICIJ는 HSBC 비밀계좌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리샤오린을 꼽았다. 리샤오린은 리펑 전 중국 총리의 딸이자 중국전력국제유한공사 회장이다.

이번 HSBC의 PB 정보 공개 파문으로 스위스의 은행비밀주의가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 HSBC는 이번 파문과 관련, "우리의 금융서비스가 세금회피나 돈 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고객 계좌는 폐쇄했다"고 강조했다.

ICIJ는 프랑스 르몽드와 협력해 HSBC의 PB 정보를 입수, 140여명의 언론인 회원들을 동원해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포트

S&P, 사우디 신용 전망 '부정적'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9일(현지시간)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S&P가 이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

S&P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상황이 최근 유가의 급락으로 불안정해졌다"며 등급 전망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獨 부총리 "그리스에 나치 배상 No"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그리스 새 정부가 꺼내 든 나치 피해 배상금 이슈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9일(현지시간) 브란덴부르크 나우엔에서 사회민주당(SPD)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브리엘 부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나치 피해액 배상 가능성에 대해 "제로(Null)"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채무 협상을 앞두고 해당 문제를 거론한 이후 독일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정면으로 이를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의회 연설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 받은 피해 배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이에 가브리엘 총리는 "그리스 새 정부의 톤이 다시 강해져 유감스럽다"며 "서로 헐뜯고 이념적으로 다투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도서 성폭행 범죄 잇달아

인도에서 성폭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자국은 물론 외국 여성들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 주도 자이푸르에서 일본 여성(20)이 관광 가이드를 자처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인도 NDTV가 보도했다. 일본 여성은 이 남성이 준 음식에 약물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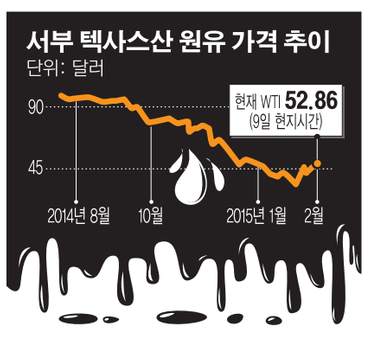
지난 2013년에는 스위스 주부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지난해 덴마크와 독일 여성도 피해를 보면서 여성 배낭여행객들의 신변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렉시트 분수령' 오늘 그리스 총리 신임투표


오스트리아 빈에서 9일(현지시간) 알렉시스 치프라스(왼쪽) 그리스 총리가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10일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이번 주가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탈퇴를 뜻하는 '그렉시트'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빈/신화연합뉴스

글로벌 '오일전쟁' 승기 잡은 OPEC

월간 보고서 "저유가로 올 원유수요 늘 것" 밝혀
美·캐나다 등 비회원국 산유량 증가폭 전망 축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오일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OPEC는 올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등 비회원국의 산유량 증가폭 위축에 주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PEC는 이날 발표한 월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12개 회원국에 대한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2920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에 비해 43만 배럴 증가한 것이다. OPEC는 지난달 하루 평균 301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다. 글로벌 전체 수요는 하루 117만 배럴 증가한 9232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고 OPEC는 밝혔다.

보고서는 아직 원유 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유가 급락이 올 하반기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OPEC는 이와 함께 비회원국의 올해 공급 증가폭 전망을 하루 평균 85만 배럴로 낮췄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42만 배럴 하향한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OPEC의 비회원국에 대한 산유량 증가폭 전망 축소는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OPEC는 특히 미국의 셰일붐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캐나다 예멘 콜롬비아 등 비회원국의 공급 전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비회원국 산유량 증가폭 전망 축소분의 4분의 1 이상을 미국이 차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의 올해 산유량은 하루 1364만 배럴로 전년 대비 82만 배럴 늘어날 전망이다. 예상이 맞다면 미국의 올해 산유량 증가폭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육상 원유시추시설은 지난해 10월 1551개에서 지난달 1263개로 290여 개 줄었다. OPEC는 미국 에너지업계가 채산성 악화에 따라 산유량을 줄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3% 오른 배럴당 52.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04% 상승한 배럴당 58.40달러에 거래됐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9일 개막

글로벌 경제 해법 나올까

신흥국 경제 리스크 점검 시작으로 경기회복 의지 다져

미국·일본·유럽에 신흥국을 더한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9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진의 늪에서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서로 약속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첫날 토의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지는 유럽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점검한다. 최대의 관심사는 각국의 금융 완화와 유가 하락의 영향이다. 유가 급락에 따른 윈드폴(wind fall, 초과이윤, 반사익)을 얻게 된 덕분에 미국의 경기는 회복세에 있지만 이것이 유럽 등 주요국 경제를 부진의 늪에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주요 신흥국의 경제 둔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G20 회의를 앞두고 블로그에 "많은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행동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라는 초대형 유조선은 잠재적 성장률 이하의 성장과 부족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얕은 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2015년 세계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3.5%로 2014년 10월 시점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과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미 재무부 당국자는 G20 회의 전에 가진 브리핑에서 "세계는 근본적으로 수요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모든 주요국에서 모든 경제 정책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10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왼쪽) 사무총장과 알리 바바잔 터키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스탄불/신화연합뉴스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를 모방, 수요와 투자 및 수출 촉진을 위해 금융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융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준이 2006년 이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달러 가치가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나라가 완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환율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재정 지출은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의장국인 터키의 알리 바바잔 부총리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은 이미 한계치까지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MS, 12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

애플·머크보다 발행규모 커… 올들어 최대

마이크로소프트(MS)가 12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MS가 107억5000만 달러(약 1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미국 경제방송 CNBC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주 애플 및 제약업체 머크의 발행 수준을 뛰어넘는 올해 최대 규모다.

MS는 당초 70억 달러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회사채 발행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려 발행 규모를 늘렸다. MS는 5년물부터 40년물까지 7개 만기로 회사채를 발행한다. 금리는 최고 35bp(1bp=0.01%P)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은 65억 달러(약 71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애플은 회사채 발행 기간을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만기로 정한 바 있다.

MS의 기업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인 'AAA'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기 발행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며 "발행금리가 현 수준에서 15bp는 더 올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MS는 내년 12월까지 취득키로 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한도가 310억 달러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中, 美 퀄컴에 '사상 최대' 1조원 벌금

반독점법 위반 혐의… 아우디 3145억원 넘어

중국이 미국 모바일칩 업체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린다.

반독점법 감독당국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퀄컴은 60억8800만 위안(약 1조668억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NDRC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고 퀄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써 퀄컴은 14개월간 끌어왔던 NDRC의 조사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퀄컴은 중국 업체들에 3세대(3G) 이동통신망과 4G 표준특허를 다른 특허랑 묶어서 라이선스 판매하는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중국 휴대폰업체에 부과하는 특허료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퀄컴은 로열티를 이전에 휴대폰 기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방식에서 순판매가격의 65%로 바꾼다. 4G 휴대폰 라이선스 비율은 새 기준 대비 3.5%, 3G는 5%가 될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퀄컴에 부과된 벌금은 지난해 8월 아우디가 물어야 했던 18억 위안을 넘어서는 중국 반독점법 사상 최대 규모다.

퀄컴은 비록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지만 중국 불확실성이 해소돼 오히려 실적 호전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퀄컴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퀄컴 주가는 나스닥에서 전일 대비 1.15% 상승한 67.11달러로 마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류스타 ‘억’ 소리 나게 모십니다”

中 안방으로 간 한국 연예인들

해외진출 노린 中 방송사 한류배우 선호
비 ‘캐릿연인’ 회당 출연료 1억5000만원
박해진·권상우 등 남배우 7000만원 이상
장나라·추자현·김태희 등 2000만~1억 선

‘South Korean Superstar Rain to Make China TV Drama Debut in ‘Love is Like Diamonds’(‘캐릿 연인’으로 중국 TV 드라마에 데뷔한 한국 슈퍼스타 비)

할리우드 리포터 2일자 기사 제목이다. 비의 중국 드라마 출연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의 중국 드라마 출연이 화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출연료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비는 ‘캐릿 연인’(40회) 회당 출연료로 1억5000만원 총 60억원의 드라마 출연료를 받는다.

최근 들어 비를 비롯한 한류 스타의 중국 드라마 출연이 홍수를 이룬다. 중국 제작사와 방송사가 막강한 차이나 머니를 바탕으로 국내 2~5배 출연료를 주고 한류 스타들을 경쟁적으로 중국 드라마에 캐스팅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톱스타들은 한국 드라마보다 중국 드라마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라는 중국의 한 한국 유학생의 말은 한류스타의 중국 드라마 출연 현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방송 예정이거나 촬영 중인 중국 드라마에 출연한 한류스타는 부지기수다. 박해진이 ‘남인방-친구’ 촬영에 여념이 없고 김태희는 ‘서성왕희지’ 촬영을 마치고 방송을 앞두고 있다. 윤아와 김정훈은 ‘무신조자룡’에 출연 결정을 했고 애프터스쿨 나나는 ‘황후의 남자’, 김범은 ‘미시대지련 초련’에 각각 캐스팅됐다. 한채영이 출연한 ‘1931년적 애정’은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추자현은 5월 방송 예정인 ‘최후일전’에 출연했다. 이 밖에 홍수아가 ‘억만계승인’, 이상엽은 ‘변신꽃미남’에 각각 캐스팅됐다.

한류 스타들의 중국 드라마 출연은 1997년 ‘사랑이 뭐길래’ 등으로 중국 한류가 일기 시작한 뒤 2000년대 초반 시작됐다. 2002년 안재욱의‘백령공우’ 출연을 시작으로 2003년 차인표의 ‘사대명포’ 주연 등 안재욱, 차인표 등 중화권 초창기 한류스타들의 드라마 출연이 속속 이뤄졌다. 그리고 장나라가 중국으로 진출해 2005년 ‘띠아오만’ 공주의 주연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대장금’이 폭발적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한류스타들의 중국 드라마 출연이 봇물을 이뤘다. 이후 권상우, 이준기, 장서희, 채림 등 한류스타들이 중국 안방극장을 통해 시청자와 만나 높은 사랑을 받았다.

2013년 ‘왕관을 쓰려는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 등이 중국에서 선풍을 일으키며 또다시 중국 한류가 거세지면서 한류스타들의 중국 드라마 출연이 급증했다. 특히 국내 2~5배의 출연료를 제시해 한류스타들의 중국 드라마 캐스팅을 진행했다. 여기에 한류 스타의 인지도를 활용해 중국 드라마의 해외진출을 꾀하려는 중국 방송사가 많아지면서 한류스타의 중국 드라마 출연이 잦아졌다.

한류스타들의 중국 드라마 출연은 권상우, 김태희, 비처럼 한국 활동을 위주로 하다 중국 드라마를 단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와 장나라, 추자현, 장서희, 채연처럼 활동무대를 중국으로 옮겨 장기간 체류하면 중국 드라마에 자주 출연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한류스타들의 중국 드라마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 “‘회가적 유혹’(2011년) 출연료를 지금과 비교하면 딱 열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추자현의 말에서 한류스타들의 몸값 폭등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드라마의 한류스타 출연료는 박해진, 권상우, 비 등 남자 스타의 경우 7000만~1억5000만원 선이고 장나라, 추자현, 김태희 등 여자 스타의 경우는 2000만~1억원 선이다. 한류 스타의 드라마 출연료가 높은 편이지만 중국 톱스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제작자들은 중국에서 최고 한류스타 이민호와 김수현에 대한 중국 드라마 출연 제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만약 이 두 스타가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 출연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입을 모은다.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knbae@

인 터 뷰 3년여 만에 정규 3집 ‘용서’로 컴백 김창완밴드

“가장 우리다운 앨범 하고픈 음악만 했다”



신곡 4곡·기존 곡 리메이크로 총 9곡 수록
어른의 시선 담은 타이틀 ‘중2’ 소통 시도

“3집은 가장 김창완밴드다운 앨범이다.” 김창완이 3년여 만에 정규 3집 ‘용서’로 컴백하며 한 첫 말이다.

김창완은 지난 5일 서울 서교동 KT&G 상상마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1집 ‘버스’는 강한 압박이 날 짓눌렀다. 동생 김창익이 사고로 죽은 후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고, 그게 앨범으로 표출돼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2집 ‘분홍굴착기’는 산울림의 레퍼토리를 리메이크하는 형식이었고, 3집에서야 우리(김창완밴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창완은 3집 앨범에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중2’ ‘E메이저를 치면’ ‘괴로워’ ‘용서’ ‘노란 리본’ 등 신곡 4곡과 기존 곡을 리메이크해 9곡을 수록했다. 타이틀 곡 ‘중2’는 사춘기 청소년의 생각이나 심리상태를 다룬 곡이다. 김창완은 “‘중2’를 만들어 놓고 실제 중학교 2학년에게 가사를 보여 줬더니, 한참 읽고난 후 ‘비슷한데 중2는 이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가사 내용에서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중3이나 하는 것이지 중2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가사를 바꿀까도 생각했다”며 남다른 고충도 토로했다.

하지만 김창완은 가사를 수정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비롯한 어른들이 생각하는 중2의 모습을 가사로 표현했는데, 그게 오해라고 해도 그대로 수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저 서로 생각을 공유한 것, 그 자체로 소통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는 퓨전 국악밴드 잠비나이와 협업했다. 이미 1978년 발표한 이 곡은 여러 번 편곡되면서 전혀 다른 음악으로 탄생했다. ‘용서’의 녹음 엔지니어는 영국 메트로폴리스 스튜디오의 하우스 엔지니어 출신인 아드리안 홀(Adrian Hall)이 맡았다.

한편, 김창완은 새 앨범 발매기념으로 서울과 춘천에서 콘서트를 갖는다. 김창완은 12일부터 14일까지 대학로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한 후 3월 21일 홍대 상상마당 라이브홀, 3월 28일 춘천 상상마당 사운드홀에서 각각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한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KBS 광복 70주년 기념 대하사극 ‘징비록’

임란을 보는 새로운 시선

전란 당시 영의정 류성룡 저서 바탕
김상중·김태우 등 연기파 배우 출연
김상휘 PD “정치·외교 등 강조할 것”

임진왜란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린 사극이 탄생한다. 바로 KBS 1TV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징비록’이다. 임진왜란 당시 총사령관격인 영의정 겸 도체찰사였던 류성룡이 7년의 전란을 온몸으로 겪은 후 집필한 동명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김상휘 PD는 “사료를 보면 일반인들이 놓치고 있는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일본인들이 전쟁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론 한국에 와서 살육을 저지르긴 했지만, 일본에서도 전쟁을 막으려는 시도가 많았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비화가 있다. 이런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데 집중했다”고 임진왜란을 그린 타 작품과의 차별점을 전했다.



KBS 1TV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징비록’ 제작발표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특히 ‘징비록’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김상중, 김태우 등 베테랑 연기자가 총출동한다는 점이다. 서애 류승룡 역의 김상중과 선조 역의 김태우는 스스로 갖는 남다른 무게감을 내비치며 카리스마 대결을 예고한다. ‘하늘이 내린 재상’이라고 칭송받는 류승룡으로 분하는 김상중은 “작품을 통해 임진왜란 또한 이순신 장군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제대로 된 국사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역시 선조 캐릭터에 대해 개인적으로 분석한 깊이 있는 통찰을 시사하며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간 왕으로만 비춰져 왔다. 이번 연기를 통해 선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국가 위기관리 노하우와 실리 위주의 국정 철학을 집대성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환란을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징비록’은 ‘다모’ ‘주몽’ ‘계백’의 정형수 작가가 집필, ‘전우’의 김상휘 PD가 연출을 맡아 묵직하고 몰입감 높은 사극으로 거듭난다. “임진왜란을 군사, 정치, 특히 외교 부분을 강조해 총체적으로 그릴 것”이라는 김상휘 PD의 야심찬 각오에 기대가 모아진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더 작고, 더 가볍게… 인간형 로봇 만들것"

재미 한인 '로봇과학자' 데니스 홍, 美해군 연구국 지원과제 선정

4년간 17억 지원 받아 소방재난용 '실용형 휴머노이드' 개발 나서

재미 한인 로봇과학자 데니스 홍(한국명 홍원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가 미 해군의 실용형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개발에 나선다.

홍 교수는 9일 자신이 이끄는 UCLA 로봇연구소인 '로멜라'의 실용형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알피오스'가 미 해군 연구국(ONR)의 지원과제로 선정돼 앞으로 4년간 160만 달러(약 17억5800만원)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알피오스는 홍 교수가 앞서 개발한 소방재난용 휴머노이드 사파이어 '토르'보다 크기와 무게는 줄이고 몸체를 접을 수 있게 디자인한 실용형 휴머노이드이다. 알피오스는 키 160㎝, 무게 38.5㎏으로 사파이어(키 178㎝, 무게 63㎏)보다 작고 가볍다. 팔과 허리, 목 등을 앞뒤로 접으면 높이가 69㎝, 옆면과 앞뒤 폭이 각각 60㎝, 64㎝로 줄고, 접었을 때 바닥이 되는 허리 부분에 바퀴가 있어 한 사람이 쉽게 밀어서 옮길 수 있다.

알피오스에는 탄성을 이용해 힘과 위치를 함께 제어하는 첨단기술인 '인공근육기술(SEA)'이 적용된다. 이 기술은 보통 로봇들처럼 로봇 관절의 위치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근육처럼 위치와 힘을 함께 제어하는 것으로 로봇이 울퉁불퉁한 바닥처럼 험난한 곳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홍 교수는 설명했다.

홍 교수는 "알피오스는 해군에서 필요한 선체 비파괴검사(NDT) 임무 수행에 맞춰 개발한다"며 "하지만 알피오스 플랫폼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형, 실용 휴머노이드 개발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해군은 이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홍 교수가 개발한 소방용 휴머노이드 '사파이어'가 지난해 11월 퇴역 함정 새드웰호에서 소방 호스를 잡고 화재를 진압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파이어는 홍 교수가 버지니아공대 재직시 해군의 지원으로 개발한 군함 소방용 휴머노이드로, 지금은 버지니아공대 연구팀이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홍 교수는 사파이어의 쌍둥이 로봇인 '토르'를 재난 수습용 로봇으로 개발하고 있다.

홍 교수는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다니다 미국으로 유학, 퍼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버지니아공대를 거쳐 지금 UCLA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로봇공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고,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공학한림원 전국회의에서 젊은 공학자가 강연하는 '길브레스 강연' 수상자로 뽑히기도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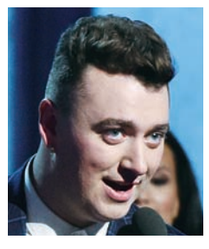
"날 차버린 그 남자에게 이 영광을"

지난해 "난 동성애자" 깜짝 선언

샘 스미스 '그래미 어워드' 4관왕

'스테이 위드 미' 빌보드 2위 올라

비욘세 3개 부문 트로피 거머쥐



'제57회 그래미 어워드'의 주인공은 샘 스미스였다.

9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린 '제57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샘 스미스는 '스테이 위드 미(Stay With Me)'로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의 레코드'에 이어 '올해의 노래', '베스트 팝 보컬 앨범',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 등 4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동성애자임을 공개해 주위를 놀라게 했던 그는 '올해의 레코드' 상을 수상하며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지난해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그 남자에게 차여서 이 음반이 나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샘 스미스는 지난해 5월 데뷔 앨범 '인 더 론니 아워(In The Lonely Hour)'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수록곡 '스테이 위드 미(Stay With Me)'는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벡(BECK)은 6년 만에 발표한 '모닝 페이즈(Morning Phase)'로 '올해의 앨범'과 '최우수 록 앨범 부문' 등 2관왕에 올랐다.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 부문에는 영화 '슈퍼버드2'에 삽입된 '해피(Happy)'를 부른 퍼렐 윌리엄스가 상을 받았다.

퍼렐 윌리엄스는 이번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뮤직비디오' 및 '최우수 어반 컨템포러리 앨범'까지 수상해 3관왕을 기록했다.

비욘세도 남편 제이지가 피처링한 곡 '드렁크 인 러브(Drunk In Love)'로 '최우수R&B 노래', '최우수 R&B 퍼포먼스' 및 앨범 'BEYONCE'로 '최우수 서라운드 앨범' 등 총 3개 부문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조인성 '美 드라마 어워즈' 3관왕



배우 조인성이 미국 드라마피버 어워즈(The 3RD DramaFever Awards)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사랑 받았던 조인성은 미국 뉴욕에서 최근 열린 제3회 드라마피버 어워즈에서 5개 부문 노미네이트의 영광과 함께 최우수 연기상, 시청자 최고 인기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드라마피버 어워즈는 미국 최대 한류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드라마피버'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드라마피버는 월 평균 사용자가 22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미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아시아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비(非) 아시아인들이 사용자의 80% 이상을 넘는다.

이번 시상식은 드라마피버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를 선정한 뒤 13개 부문으로 나누어 12월 중순까지 투표를 진행됐으며, 약 150만명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최두선 기자 sun@

글로벌 증권감독 거물들 서울에 모인다

내일부터 사흘간 IOSCO 이사회

30개국 100여명… 첫 한국 개최

시장안정·장기성장 지원방안 논의

세계 금융투자업계의 증권감독당국 거물들이 서울에 모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IOSCO는 증권거래 감독·규제에 관한 협력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서 IOSCO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이사회에는 IOSCO 이사회 의장인 그렉 메드크래프트(Greg Medcraft·호주ASIC위원장) 등 30개 회원국 약 100여명의 증권감독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잠재 리스크와 감독 방향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디지털변혁(Digital disruption)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금융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바람직한 감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와 관련해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증권회사·펀드(NBNI SIFIs) 등 선정기준·감독방안 마련 및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부과방안 이행 시기 연기에 대해 논의한다. 이 밖에도 △정보교환·협력강화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 개정안 논의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로 장기성장기반 지원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간 협력 강화 등도 논의된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성장 등 뉴노멀 시대의 잠재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IOSCO 중심의 긴밀한 국제공조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이사회는 오는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김희진 기자 heejin@



중국 여배우 장쯔이(왼쪽)가 연인 왕펑의 공개 청혼을 수락했다. 사진제공 중국웨이보

드론에 실린 9.15캐럿 다이아반지

장쯔이, 우리 결혼할래요?

중국 영화배우 장쯔이가 최근 남자친구인 가수 왕펑으로부터 드론(무인기)을 동원한 청혼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8일(현지시간) 중국 현지매체들은 '와호장룡' 등 30여편의 영화에 출연한 세계적인 스타 장쯔이가 36번째 생일 파티에서 연인 왕펑이 바구니에 담아 무인기에 실어 보낸 9.15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청혼 반지(시가 약 9억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장쯔이는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받아들였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로 축하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장쯔이가 받은 반지는 세계 10대 다이아몬드 중개상 중 하나인 영국 런던의 모사이에프 다이아몬드(Moussaieff Diamond)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쯔이에게 청혼한 왕펑(43)은 팝스타로 두 차례 결혼한 적이 있으며 현재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오브 차이나(Voice of China)'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한편 왕펑은 지금까지 장쯔이에게 총 12번의 청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우리선물 대표에 김병욱 사장



우리선물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욱 NH농협선물 사장(왼쪽)이 선임됐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경북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회원종합지원부 부장,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NH농협선물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우리선물은 (구)우리투자증권의 100% 자회사로 우리투자증권이 NH농협증권과 합병한 후 NH투자증권의 자회사가 됐다. 문선영 기자 moon@

IBK기업은행, 中企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4억 전달



IBK기업은행은 9일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223명에게 장학금 4억원을 전달했다.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4501명에게 59억원의 장학금을, 1395명에게 54억원의 치료비를 후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딜로이트' 첫 여성 CEO

케이시 엠겔베르트



언스트앤영(EY),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KPMG, 딜로이트 등 미국 4대 회계법인에서 처음으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감사전문법인 '딜로이트 앤 투시'는 케이시 엠겔베르트(50)를 임기 4년의 CEO로 결정했다.

미국 4대 회계법인 가운데 첫 여성 CEO가 된 엠겔베르트는 1986년부터 딜로이트에 몸담았으며 미국 회계정책 및 기준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위원회(ABS)에서 정책 조언을 담당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송두용·김영민씨 선정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송두용 조이테크 전무이사와 김영민 LG화학 연구위원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월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송두용 조이테크 전무이사는 단계별 조립·테스트 공정으로 생산되던 '마스터실린더(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의 액압을 공급하는 장치)' 제조 공정을 일체화했다.

김영민 LG화학 연구위원은 26년간 고분자 유화중합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로서 폴리부타디엔 라텍스(PBL)와 ABS수지의 새로운 유화중합 공정을 개발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켰다.

조성준 기자 tiatio@

'셀 시스템스' 초대 편집위원에 이상엽 KAIST 교수



KAIST(총장 강성모)는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가 셀 시스템스(Cell Systems)의 초대 창간 편집위원에 선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오는 7월 첫 발간되는 셀 시스템스는 네이처, 사이언스와 함께 세계 3대 학술지로 알려진 셀(Cell) 자매지로, 생명공학 시스템 관련 전반적인 분야를 다룬다.

셀 시스템스는 획기적 발견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구, 특히 바이오 분야의 정량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료와 비(非) 천연 화학물질의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생물대사공학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저널 편집장 등 20여개의 국제 학술지 편집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어젠다 카운슬 멤버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시스템생물학과 시스템생명공학의 대표적 학술지가 될 셀 시스템스에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많이 게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소통국장 백용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바이오나노과장 정해권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파견 △항공보안과장 박준형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장 김종학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이창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이정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덕호

◆외교부 ◇과장 인사 △정책홍보담당관 한정일 △정책분석담당관 상승만 △감사담당관 이영근 △기획재정담당관 최진원 △의전총괄담당관 서원삼 △의전행사담당관 김지민 △동북아2과장 최용준 △동북아3과장 김한규 △동남아과장 함정한 △북미1과장 홍지표 △북미2과장 권성환 △남미과장 황소진 △중미카리브과장 최준호 △유라시아과장 나원창 △아프리카과장 권혁운 △유엔과장 강주연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원도연 △재외국민보호과장 류호권 △여권과장 박현규 △경제협력과장 한민영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김석우 △북미유럽연합경제외교과장 윤주석 △국제에너지안보과장 최종욱 △북핵협상과장 이준일 △대북정책협력과장 최태호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장 이문배 △국립외교원 총무과장 김인택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장 박정호

◆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박난숙 ◇국장급 전보 △여성정책국장 이기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박재규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배영수 ◇과장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윤수현 △기획재정담당관 고병희 △기업결합과장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송상민 △서비스업감시과장 황원철 △기업거래정책과장 최무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이유태 △대통령비서실 파견 이숭규 △세종연구소 파견 조홍선 ◇과장 승진 △약관심사과장 민혜영

◆특허청 ◇고위공무원 전보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 장완호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상철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관 판현기 △" 정덕배 △" 강구환 △" 이영민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교육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정준석 ◇4급 과장급 교육 파견 △세종연구소 정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임 △상임이사 권인원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이재만 ◇팀장 △김정재 e비즈니스팀장 △정구학 BT팀장 ◇파트장 △서미숙 업무상담2파트장 △서경희 투자상담2파트장 △김동욱 e비즈니스기획파트장 △한성욱 BT전략파트장 △정준 BT서비스운영파트장 ◇지점장 발령 △강도현 부천지점장 △서용환 금융플라자GFC지점장 △이종선 이촌지점장

◆IBK캐피탈 ◇사업본부장 승진 △기업금융본부 합석호 ◇부(팀)점장 승진 △대구지점 정상화 △경영지원팀 김세곤 △IB영업팀 박인식 ◇부(팀)점장 전보 △경영전략부 권영백 △리스크총괄부 박재두 △심사부 배지훈 △여의도금융센터 김영건 △리스금융부 최항길 △울산지점 배찬열 △인천지점 장상규

부음

▲정재관(전북도청 삼락농정팀)씨 부친상 = 9일 정오, 순창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10시, 010-5333-2567

▲정등룡(목사)·민호(보해양조 전무)·재원(보성군청)씨 모친상, 김선희(장흥 유치중)·최미덕(방산 보건진료소)씨 시모상 = 9일 오전, 광주역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1일 수요일 오전, 062-264-4444

▲김중연(한국은행 부국장)씨 장인상 = 9일,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월 11일, 043-269-6969

▲이규진(안산시청 환경미화과)·보숙(대신증권 부평지점 대리)씨 모친상, 김용호(전 광주지방경찰청)·김석구(자영업)·박용환(자영업)·이용운(노루페인트 공무과)·김균식(㈜킴스코퍼레이션 상무)씨 장모상 = 8일 오후 11시 20분, 부천세종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1일 오전 8시, 032-346-1164

▲류현순(KBS 전 부사장)씨 시부상 =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02-2227-7556

CEO 칼럼

김 재 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청년 취업, 농식품을 주목하라



최근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이루는 중국의 거대 식자재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식자재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가 놀란 것은 그룹 회장이 40대 초반의 젊은이라는 것이다. 학력이 좋거나 돈이 많은 명문 집안 출신이 아닌데 30대 초반에 맨주먹으로 시작해 큰 부를 일궜다고 한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그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나라 젊은이도 이러한 도전정신과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채용된 공사 신입사원들과 대화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일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가 대단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공기업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열정을 갖고 일하면 얼마든지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aT는 지난 6일 '대학생과 함께 하는 농식품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 경험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대표 식품기업 CEO와 농식품 청년 창업가, 대학생들이 모여 토론을 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농식품 대학생 네트워크인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 얍(YAFF:Young Agri-Food Fellowship)이 중심이 되었다. 작년 6월 출범한 '얍'에는 전국 121개 대학 1500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과 관계없이 농식품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조직이다. 공사 신입직원의 생생한 구직 경험과 조언도 들을 수 있는 '멘토-멘티 채용설명회', 우리나라 대표 식품박람회인 대한민국식품대전(KFS) 추진단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었다.

'얍' 소속 청년들은 작년에도 대중국 수출 확대 아이디어 공모, 창조마당 아이디어 공모, 우리 지역 농식품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농식품 현장에서 배운 경험이 접목되면 새로운 '현장형 인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장 경험을 갖추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생산 현장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독일이나 북유럽식의 '견습제도(apprenticeship)'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독일과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낮은 국가다. 청년 취업 희망자가 학교와 일터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 시스템, 즉 '듀얼 시스템' 덕분이다. 현장 일을 하면서 체계적 이론과 실무경험을 쌓는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은 50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만 해도 150만명에 이른다. 스위스도 고등학교 때부터 일과 학습 병행이 일반적이다.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의 약 90%가 도제제도에 참여한다. '현장형 인재' 양성으로 취업난을 돌파한 것이다.

세계 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자동차나 IT산업보다 크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농식품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성장 가능성이 큰 농식품 분야를 주목하기를 기대한다. 농업 생산뿐 아니라 유통, 수출입, 식품안전, 의약, 생명, 소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부터 농식품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일자리는 농식품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청년들이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고 농식품분야에 도전하기를 기대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철순 칼럼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지도자의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표지가 단순하다. 재임연도 2008~2013이라는 표기와 걸어가는 모습이 전부다. 이 전 대통령은 걸어가면서 왼쪽의 누군가를 보며 웃고 있다. 왜 이런 사진을 썼을까. 그 자신을 근엄하게 돋우는 근영(近影)도 아니고 여러 사람과 어울린 행복한 장면도 아니다.

굳이 이 사진을 쓴 것은 늘 바쁘게 움직이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 온 용의주도함을 강조하기 위한 무의식적 선택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이 되기 전 어느 술자리에서 "나는 지금 내 뒤에서 누가 뭘 하는지 알 수 있다. 뒤에도 눈이 있다"고 말하던 모습과 겹친다.

그러나 그 표지의 모습은 앞으로 걸으면서 다른 쪽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보느라 제대로 앞으로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말하자면 해찰을 부리는 것이다. 이 말은 딴 길로 새는 것,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하는 걸 일컫는 사투리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편하게 이것저것 살피는 산책길의 해찰(解察)과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

책 제목 〈대통령의 시간〉도 소통과 공감의 언어가 아니라 독점과 배제의 언어로 읽힌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 그러나 그 시간의 값은 나이와 성별, 신분과 직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남들이 시간의 값을 크게 쳐주는 사람일수록 그에 걸맞은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의 시간은 그저 부여(賦與)된 시간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허여(許與)된 시간이다. '대통령의 시간'은 당초부터 '이명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이 회고록이 비판을 받는 동안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이 타계했다. 그의 '대통령의 시간'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의 2배다. 바이체커는 훌륭한 인품과 진지한 연설로 독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지성인이다. 그는 취임 후 처음 맞은 독일 패전일(1985년 5월 8일) 연설을 통해 그 패전이 해방이었으며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패전이 해방인지 굴종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가자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독일의 정체성을 확립한 명연설이었다.

또 통일 독일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선포하는 연설에서 "통합은 나눔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合)과 분(分)이 절묘하게 결합된 메시지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퇴임 후에는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와 함께 이른바 '독일 현인' 구성원으로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들여 연설 구상을 했고, 자신이 직접 글을 썼다. 회고록도 냈지만 물의가 빚어진 일은 없었다.

대통령이라면, 전직 국가원수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해야 하지만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고갱이는 시대와 국민에 대해서 말을 거는 것이다. 시대와 국민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국민에게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다 마찬가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산업화→민주화→정보화의 이행을 거쳐온 시기에 대통령이 됐으면 통합의 정치, 합류의 메시지를 송신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암덩어리, 단두대, 원수 이런 식의 살벌한 공격적 언어가 연발되고 있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과 그의 재임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의 대화록이 최근 번역 출판됐다. 말로가 기록한 이 책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소설가 알베르 카뮈와의 문답이다. 카뮈가 "작가는 어떻게 프랑스에 봉사할 수 있나요?" 하고 물은 데 대해 드골은 "글 쓰는 모든 이, 글 잘 쓰는 모든 이는 다 프랑스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작가만이 아니다. 글을 잘 쓰는 것, 말을 잘 하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다. 바이체커나 드골이 '지도자의 시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들의 독서와 사려, 분별이 부럽다.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다.

fusedtree@

하루 한 생각 2월 10일

功七過三(공칠과삼) 잘한 것이 일곱이고 잘못한 게 셋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문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 참배했다지만 당 내외에서 비판이 거세다. 예상됐던 일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은) 공적이 7이고 과실이 3 정도 되지만 반성과 청산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었다. 이른바 공칠과삼(功七過三)론이다. 그런데 이번에 참배를 하면서 문 대표는 방명록에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썼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라는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칠과삼'으로 평가한 바 있다. 공이 7이라는 것보다 과가 3이라는 걸 강조한 언급이지만, 어쨌든 그나마도 화제가 됐던 말이다.

공칠과삼은 안 지사가 그 책에서 소개한 대로 덩샤오핑(鄧小平)이 마오쩌둥(毛澤東)을 평가한 말이다. 문화혁명 당시 마오에 의해 숙청돼 큰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의 공을 7로 평가한 게 놀랍다.

공칠과삼은 원래 공로와 허물이 반반이라는 공과상반(功過相半)을 응용한 말이다. 공과상저(功過相抵)·공과참반(功過參半)도 같은 말이다. 시대와 개인의 평가에 따라 같은 인물이라도 공칠과삼이 되거나 공팔과이(功八過二)가 될 수 있다. 큰 인물일수록 훼예포폄(毁譽褒貶)이 엇갈린다. 누구든 되도록이면 공업기과(功掩其過·공적이 그 허물을 가린다)로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적으로 과만 저지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역사에는 조선 영조~순조 연간의 무신 유효원(柳孝源·1751~1813)이 홍경래의 난을 평정한 공을 세우고도 2000명 가까운 반군을 모두 처형했다 해서 공과상반으로 비판받은 기록이 있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온라인 와글와글

5만원대 디저트 '작은 사치'…스스로를 위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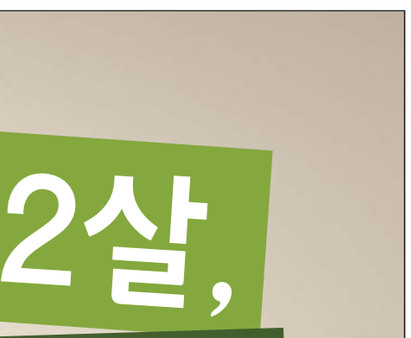


○…경기 불황이 지속될수록 오히려 '작은 사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5만원대 딸기 디저트, 두 알에 9000원짜리 초콜릿 등 일부 초호화 품목들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온라인상에는 "개인 취향이라고 해도 이건 이해 못 하겠다", "불황이 맞긴 해? 밤마다 먹자골목엔 사람들 넘쳐나고 유흥업소, 노래방 앞에는 차가 쉴 틈 없이 들락날락", "주로 싱글족들이 작은 사치를 누리긴 하더라.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선물인가. 그래도 좀 심한 소비라고 생각한다", "자기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멋진 사람이지. 작은 사치? 허영심에 기댄 대리만족일 뿐", "그래도 내수를 살려주는 고마운 분들 아닌가. 없는 돈까지 털어서 사 드시고", "7000원짜리 식사에도 벌벌 떠는데 딸기 디저트로 5만원? 말세다", "저런 데 쓸 돈 있으면 불우이웃한테 밥 한 끼 사주고 옷 한 벌 사주고 책 좀 사 주겠소" 등 냉소적 의견이 많았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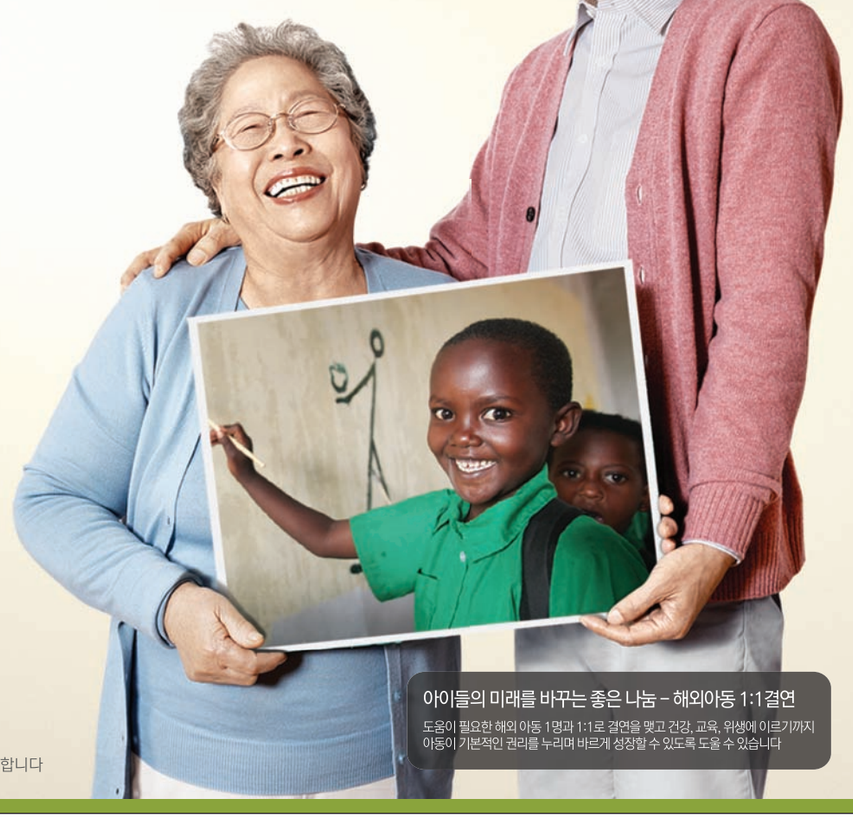
완전체로 컴백한 포미닛



배국남닷컴은 최근 컴백한 포미닛을 만났다. 포미닛은 트랩 힙합곡 '미쳐'로 승부수를 띄운다. 포미닛은 "앨범 콘셉트 기획부터 '우리가 잘하는 음악이 뭐지?'라는 의문에서 시작했고, 센 음악과 퍼포먼스를 하자는 데 모두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쳐'는 비트가 강렬하고, 랩에 힘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미미미친것처럼'이라는 반복된 후렴구와 '이 밤을 즐기자'는 가사가 중독성이 있다. 안무는 세계적 안무가 패리스 고블(Parris Goebel)이 맡았다. 패리스 고블은 포미닛의 전체적 안무 외에도 개별 멤버들이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완성했다. 스타일도 파격적이다. 포미닛 멤버 전원이 배꼽을 노출했다. 의상도 '블랙'으로 통일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굿네이버스



내 나이 72살,
늦둥이가 생겼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한 아이를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할멈과 오래오래 살면서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 늦둥이, 잘 키워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당신도 나눔을 시작해보세요

1:1결연 후원신청전화 1599-0300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좋은 나눔 – 해외아동 1:1결연
도움이 필요한 해외 아동 1명과 1:1로 결연을 맺고 건강, 교육, 위생에 이르기까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를 응원합니다

正論

反다문화, 反이슬람 정서 안 된다



김 준 식
(사)아시안프렌즈 이사장

지난해 12월 3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드레스덴에서 벌어지는 반(反)이슬람 시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들 마음속엔 편견과 냉담,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하듯 패전 후 독일의 역사는 극우, 나치 극복의 역사였는데, 최근 독일 내에서 벌어지는 반 이슬람 시위와 극우 집단의 확산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유럽 각국은 1960년대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힘든 일을 하는 노동력 부족을 거의 중동과 아프리카 이민자들로 채워왔다. 60년대 독일이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수입한 것도 당시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경제 침체의 여파로 취업률이 하락하자 우익정당과 극우 집단들은 엉뚱하게도 그 책임을 그동안 3D 업종에서 힘든 노동을 감당해 왔던 이민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반 이민자, 반 이슬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고, 극우 정당들은 이런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유럽의 주류사회는 유럽은 여전히 다문화 국가이고 다문화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윤리적으로도,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유럽 여러 나라는 이미 이민자의 수가 전 국민의 8%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이민자들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유럽 국가들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들은 경제 침체기에 자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조금 수정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한국의 일부 집단이 이런 유럽의 분위기가 마치 유럽 전체가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이주자들을 다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무슬림 종교인 전체를 모두 테러집단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은 이미 한국의 중요한 노동력이고 소비자이다. 그들 중 15만여명은 이미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 20만명은 한국인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2012년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간 생산유발 효과만도 10조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한국의 수출액은 5731억 달러인데 그중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모두 합해 27%이고 나머지 73%는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난민들을 보내는 중국, ASEAN,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이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이고 그 수만도 세계 천주교인 수 12억명보다 많은 13억명이다.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거나 건설 플랜트 수출을 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 이슬람 국가이다. 한국이 지난 2013년 이들 이슬람권 나라에 수출한 실적도 연간 수출의 10%인 약 500억 달러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우리 한국이 이슬람교를 무시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추방한다면 결국 한국의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고, 윤리적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인지,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국익인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한국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객석

홍 봉 희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교통·기상 빅데이터와 국민행복



입춘이 지났으나 아직도 겨울이 끝나려면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고, 강원 영동과 서해안 일부지역은 아직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이 오기 시작하는 겨울철에 눈길과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은 밝히고 있다. 결빙구간이 많은 응달진 도로나 산길, 교량, 터널 등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어느 도로가 언제 위험한지를 알려주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사고 자료와 기상정보를 연계 분석해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 안전 정보를 해당 운전자에게 적시에 전달해주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전방 부분에 눈길 또는 결빙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과거에도 결빙으로 인한 인적사고, 물적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운전자는 궁금하다. 기상정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소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도로별 시간대별 교통사고 데이터와 도로 기상정보가 수집·제공돼야 한다. 둘째, 주행 중인 운전자의 차량 위치를 알아내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 각별한 안전 운전 주의가 필요한 구간의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기상정보와 연계된 교통 사고 정보는 단순 지역별 통계가 아닌 도로 지점별, 시간별, 사고 유형별 데이터가 수집·보관돼야 한다.

기상정보에 연계된 교통정보 분석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폭우 또는 태풍으로 인한 도로 침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보하는 것이다. 민간기관과의 협업으로 도로 구간별 도로 기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해 도로 침수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사전에 미리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

기상과 교통은 매우 밀접해 눈길 또는 폭우 이외에 여름철 해수욕장 가는 길, 가을철 단풍구경 가는 길에 대한 교통 혼잡 분석과 예보 서비스도 가능하다. 기상정보 기반 교통 데이터 분석은 도로 위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교통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통 흐름의 분산 효과를 가져오게 돼 국민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기자수첩

김 희 준 정치경제부/h9913@

재정적자, 정부의 '자기최면'



경기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는 게 사실이다. 비관적인 전망이 강해지면 투자도 위축되고 그만큼 고용, 내수, 경기에 악순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은 최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정부의 경제전망이 자기최면의 수준으로 넘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예산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이 '장밋빛' 자기최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감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갔다.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이 4%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절반가량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직전 연도에 금융위기가 있음에도 내놓은 전망치는 결국 0.3% 성장의 결과로 되돌아왔다.

2011년에는 5.0%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7%에 불과했다.

유럽재정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하던 2012년, 정부는 4.5% 성장을 내다봤으나 결과는 2.0%였다. 2013년엔 4.0%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다.

지난해 3.9%의 성장을 예측한 정부의 성적표는 한은 잠정치로 3.3%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한 예산과 실질세수의 괴리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3.8% 성장을 전망한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IMF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4.0%에서 3.7% 증가로 낮췄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달 3.4%의 전망치를 발표, 정부와 괴리를 보인다. 매년 연말이 되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수조원대의 세수 결손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벌충된다.

서민증세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눈이 아쉽다.

이꽃들의 36.5℃

문화부 기자

위안부 할머니에 관심갖는 스타들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 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 그의 발언에 세계가 더 경악했다.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주 하와이 일본 총영사 한 관계자는 맥그로힐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쓴 교수를 찾아가 위안부 관련 기술에 대해 수정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역사와 사실을 은폐하는 시대착오적 행보에 대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유력 언론들은 반발 여론을 보도했고, 미국 역사학자들 또한 비판 성명을 쏟아냈다. 일본군 위안부 이슈는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거쳐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전쟁 중 일어난 여성 인권 침해'란 부인할 수 없는 범죄 사실로 인정됐다. 이제는 국제법적 공식 배상과 사과로 해원(解冤)해야 할 단계임에도, 순리를 거스르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 세계의 비판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지, 김준수, 이효리, 김장훈, 조안 등 스타들의 위안부 할머니를 향한 세심한 배려는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수지는 스타들이 과시용으로 일삼는 공항패션에서 남다른 아이템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소셜 브랜드 마리몬드의 휴대폰 케이스 제품이었다. 특히 휴대폰 케이스를 비롯한 해당 브랜드의 각종 제품은 고(故) 심달연 할머니의 압화 작품을 모티브로 삼은 디자인으로 더욱 의미를 더한다.

JYJ 김준수 역시 지난해 2월 뮤지컬 '디셈버' 대구 공연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취지의 나비 배지를 달고 나왔으며, 이효리는 2011년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수요 집회 1000회에 앞서 대중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안은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극영화 '소리굽쇠'에 출연하며 기꺼이 아픔에 동참했다. 또 한 명의 수지, 또 하나의 이효리, 조안을 기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바람이다.

부모를 일찍 여읜 뒤, 17세 나이에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일본인의 말을 믿고 떠난 길에서 쉬이 돌아올 수 없었던 원통하고 한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황선순 할머니가 지난달 26일 별세했다. 정부에 등록된 238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남은 할머니는 이제 54명뿐이다.

최근 한 매체가 서울·수도권 지역 7개 학교 중 고등학생 6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고생의 65%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 알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청소년 관심의 1순위다. 수지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사업에 수익금을 돌리는 폰 케이스 하나로 폭발적인 인기를 촉발하며 판매 브랜드의 사이트를 마비시키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장악했다. 결국 스타로서 영향력을 아름답게 활용한 선례다.

내 땅에서조차 편히 내디딜 수 없는 두 발을 한 채, 억지로 뎅강 뜯겨버린 머리카락을 한 평화비가 있다. 서울, 대전, 미국 글린데일 곳곳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뼈아픈 상처, 이에 대한 진실한 사죄를 염원하는 평화소녀상이 오늘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스타의 작은 행동마저 너무 반가운 이유다.

flowersle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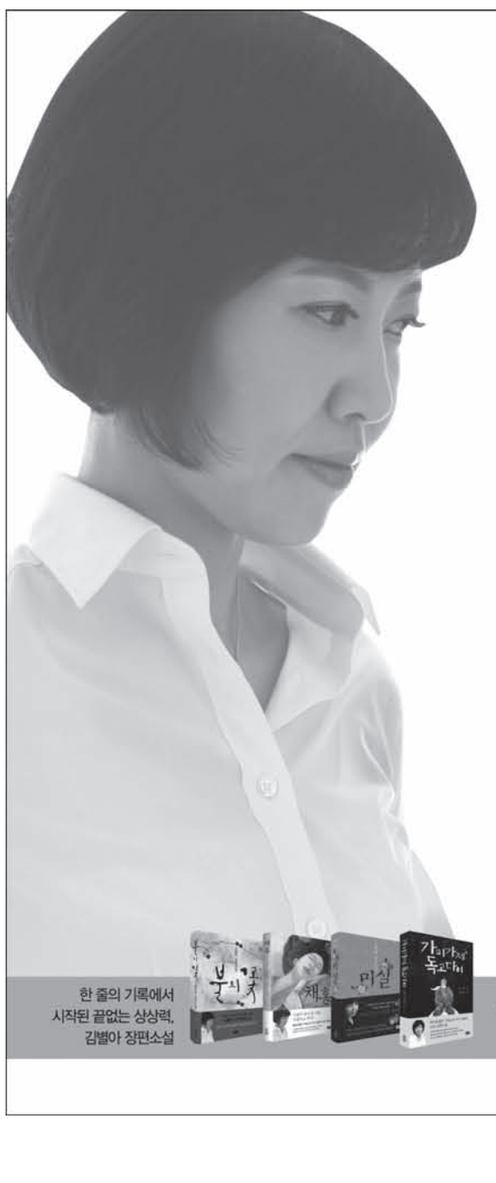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해냄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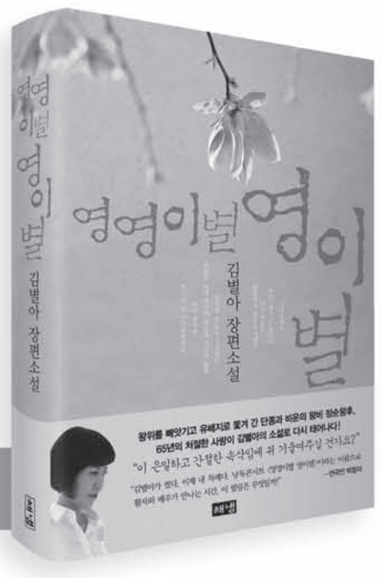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칼끝을 걷듯 살아온 인생, 끝내 살아내리라!

왕비에서 평민으로, 날품팔이꾼, 걸인, 비구니까지
피와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낸 은애(恩愛)의 기억
단종 비 정순왕후가 고백하는 두 해 남짓의 사랑, 예순다섯 해 그리움

"김별아가 썼다. 이제 내 차례다.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활자와 배우가 만나는 시간. 이 떨림은 무엇일까!" —연극인 박정자

그녀의 존재를 말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세상이 외면했던 65년의 고독을 말하면, 경악한다. 그녀가 움켜잡았던 온기, 이름 모를 여인들의 거친 손을 말하면 눈물짓는다. 삶은 수다한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자 목적임을, 나 또한 그녀를 쓰고 나서야 알았다. 알아가고 있다. —「작가의 말」 중에서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된 끝없는 상상력, 김별아 장편소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사랑, 김별아 에세이

사륙판 | 양장본 | 272쪽 | 13,800원

김별아 장편소설 영영이별 영이별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 기술력 -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기술 + 우드형 헤드설계로 인해서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총 중량이 더 가볍고 헤드밸런스도 가벼워서 스윙이 쉽고 편하다.
- 트랙맨(TrackMan) 분석결과 백스핀이 1.12배 더 증가했다.
- 헤드의 솔이 넓기 때문에 뒤땅이 없다.
- 쓸어치게 되기때문에 엘보우가 없다.



#2 ~ #11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L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주의 –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 점 (02-310-1538) 영등포 (02-2639-1536) 충청점 (041-640-5753) 광주점 (062-360-1402)
강남점 (02-3479-1532) 인천점 (032-430-1563) 부산점 (051-745-1823)
경기점 (031-695-1845) 의정부 (031-8082-0712) 마산점 (055-240-1406)
·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 안양베네스트 cc · 동래베네스트 cc · 가평베네스트 cc
· 이포 cc · 안양베네스트연습장 · 센추리21 cc
· 신원 cc · 아시아나 cc · 해비치 cc 서울
반포 골프백화점 (02-534-022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물고기'보다 '낚는 법'…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격언이다.
최근 재테크 시장에서는 이 격언이 자녀 대신 부모님을 위한 격언으로 바뀌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릴
선물이나 용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면
요즘에는 부모님을 위한 재테크 상품을 알아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재테크 상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100세시대 앞둔 부모님 위해 '용돈' 대신 '금융상품' 선물 인기
'절세·배당·원금보장' 키워드… ELS·선진국 국채 투자 주목

100세시대 도래와 시장 상황이 이 같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정기예금은 실질적인 마이너스 상태가 됐다. 주식투자는 유가 하락,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등 글로벌 변수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니어들에게 권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리자니 말 그대로 한 번 쓸 돈을 드리는 데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차라리 부모님을 위한 재테크 상품을 선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에 증권사들도 시니어들을 위한 재테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효도 상품의 키워드는 △절세 △배당 △원금 보장으로 요약된다. 10대 증권사들이 내놓은 상품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세가지 특징을 벗어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절세 상품이다.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세금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이 올해에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와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을 제시했다. 유안타증권은 중국 본토 상하이A주와 홍콩H주에 투자하는 상품을 마련했는데 랩어카운트를 통한 해외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주 투자 상품도 시니어들에게는 관심이 높다. 배당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실제 몇몇 기업들의 주주친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여전히 전망이 좋기 때문이다. 나아가 원금보장형이나 채권 투자 등 안정성에 방점을 둔 상품도 눈에 띈다.

유진투자증권은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 배당 투자까지 노리는 채권 투자 상품을 추천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이자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산에 투자해 정기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권했고, 미래에셋증권 역시 선진국 국채와 이머징 국채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추천했다. 대외변수가 높은 시장에서 변동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안정성을 강화한 구조의 ELS를 제시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하락해도 원금손실은 20%까지로 제한했다.

현대증권은 카드상품을 제시했다. 업계 최초로 카드에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금융상품을 연계해 추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황윤주 기자 hyj@
일러스트 사유진 기자 yjsa2018 @

커버스토리 18~20면

"고수익·안정성 충족상품 없다 적정한 목표 수익 설정이 중요"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장



이제 단순한 나이만을 가지고 노후를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정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현업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노후 재테크 투자상품들이 줄을 잇고 있다. 때문에 이들 금융상품들은 표현부터 달리하고 있다. 과거 단순하게 나이든 뒤를 의미하는 노후를 벗어나 '시니어'와 '은퇴' 등 이를 순화한 다양한 표현을 앞세우고 있다. 아직 노후를 감안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중년부터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장은 이와 관련해 "노후 재테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시니어 금융투자 목적따라 투자상품도 달라
재테크 이유·안정성·현금 흐름 파악 명확해야
올해는 공모주·배당주 활용 포트폴리오 주목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니어 재테크 의미 = "이제 단순히 나이만 따져 노후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현업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게 노후라는 것이지요.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가 노후에 겪게 되는 상황은 지금과 아주 많이 다를 겁니다."

최광철 부장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후 재테크의 대상 역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먼저 입을 열었다.

과거 '노후 재테크'는 단순하게 60세를 넘어 정년을 채우고 현역에서 은퇴한 고객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활동의 전성기, 즉 가장 많은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은퇴직전은 아니다'는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등장한 시니어 재테크 상품은 다른 투자상품과 뚜렷한 차이점을 지닌다. 고정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탓에 공격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현업에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예정한 이들 대부분은 향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처럼 공격적인 투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대부분의 자산관리 상품 역시 안정적인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자상품은 결국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분산 투자돼 있다. 상품별 차이점은 투자 대상이 아닌 전략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크게 절세와 안정성, 유동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는 게 유리하다.

최광철 부장은 시니어 재테크 상품을 고를 때 △재테크의 목적 △안정성 그리고 △현금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테크 목적과 안정성, 현금 흐름 파악이 중요 = 먼저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히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정기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투자상품이 달라집니다. 각 재테크 상품들 대부분 이같은 목적에 부합해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반드시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자산관리 상품이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수익 목표인데요. 적정한 목표 수익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상품은 현실에는 없으니까요."

원하는 목표수익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현금의 흐름을 파악해 상품을 골라야 한다. 그는 "한 마디로 언제 돈이 필요한지 투자상품을 고를 때 미리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투자상품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는 곧 목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자산관리 상품을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 부장은 "혼자 따져보고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의 노후생활은 이미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시니어 재테크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측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분리과세 혜택부여,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확대 등이 그것이다.

최광철 부장은 "시니어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벌기보다는 적당히 벌기 위한 적정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만일을 대비해 현금 흐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공모주와 배당주, 지수형ELS, CMA 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실버세대 규칙적인 소득없어 월지급식 상품으로 현금 조달"

김용태 유안타증권 상품기획팀장



재테크 환경을 둘러싼 큰 틀의 변화가 이뤄지는 요즘은 실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기 십상인 시기다. 유안타증권 김용태 상품기획팀장은 최근 재테크 상품시장 환경에 대해 저금리, 중국의 부상, 정부의 세제개편 등을 꼽았다.

그는 60~70대 투자자들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며 "원금보장이 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연계증권(ELB)이나 매월 비과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재테크 시장 트렌드, 예금서 지수형 ELS로
60~70대에겐 고위험·고수익보다 안정성 권해
주식연계증권·비과세 연금 수령 상품이 적합

△재테크 상품시장의 현황과 최근 트렌드는

-유례없는 금리하락으로 정기예금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안정성 측면을 제외한 예금의 수익 측면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금리가 조금 높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형 ELS(주가연계증권)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단기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 투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와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대형 공모주들의 수익률이 좋게 나오면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시작된 후강통(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케 하는 제도)으로 인해 중국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중국 주식 직접투자도 많이 늘고 있다. 후강통 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늘다 보니 최근 이루어진 설명회에 대한 고객들 문의도 많이 늘고 질문도 다양해지고 있다. 직접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 관리와 종목 선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랩과 신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국 투자로 적립식 투자가 최근 호응이 좋다.

△세제가 바뀌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

-기본적으로 증세의 입장이다. 연말정산문제만 봐도 그 기본틀을 알 수 있다. 비과세, 소득공제, 펀드 등의 지원 및 혜택이 감소했다. 많은 절세 혜택이 줄어든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장펀드, 연금저축 상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종과세 회피 측면에서 분류과세되는 상품에 대한 고민도 더욱 많아졌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제도 도입을 보면 내수 진작과 기본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듯하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고 임금을 더 높여 주주 가치 제고와 가처분소득 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듯하다.

△60~70대에게 추천할 만한 재테크 상품 종류는 무엇이 있나

-60~70대의 투자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고위험·고수익 상품 투자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지급식 상품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원금보장이 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연계증권(ELB)이나 매월 비과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 등의 상품이 적합하다. 또한 만 61세 이상의 고객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절세형 재테크 상품 선택을 할 때 유념할 사항이 있다면

-즉시연금의 경우 안정성은 높지만 기대수익이 낮기 때문에 자산이 적거나 높은 현금 흐름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 또한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저축성보험(저축보험, 즉시연금 등)을 합산하여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기대수익이 너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투자자 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조기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년 이내 해지시 납입 누계액의 6.6% 추징이 있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의 경우 7년 이내 해지시 소득세가 추징되므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만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삼성증권 저행사가·원금부분보장형 ELS

원금손실 최소화…금리+알파 추구



지난해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ELS 발행금액은 71조 796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특정종목의 주가하락에 원금손실구간(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한 ELS도 2조원에 육박했다. 증권사들은 과거 상품보다 기대수익률을 낮춘 대신 여러 안전장치를 더하거나 조기상환 기준을 완화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삼성증권은 효도상품으로 안정성을 높인 '저행사가 ELS'와 '원금부분보장형 ELS'를 추천했다.

최근 안정성을 강화한 구조의 ELS는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수익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금부분보장형 ELS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하락해도 수익을 지급하는 스텝다운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원금손실은 20%까지로 제한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LS 11514회'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의 스텝다운 상품으로 6개월마다 두 지수가 모두 95%(6, 12개월), 90%(18, 24개월), 85%(30, 36개월) 이상이면 연 10.0%로 상환된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의 80%가 보장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삼성증권은 첫 조기상환 행사가를 85% 수준으로 낮춰 조기상환 확률을 크게 높인 '저행사가 ELS'인 ELS 11516회도 판매 중이다.

기본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지수형 스텝다운 ELS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자산을 6개월마다 관찰해 관찰 시점의 지수가 조기상환 행사가 이상이면 수익상환해주는 3년 만기 ELS이다.

조완제 삼성증권 상품개발팀장은 "ELS의 원금손실 우려와 ELB의 낮은 수익률을 보완한 것으로, 안정성은 강화하면서 금리+알파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 골든에이지

은퇴자금 10년 맡기면 134% 수익



KDB대우증권의 '골든에이지' 상품은 노후를 위한 은퇴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상품으로 매월 넉넉한 월수입과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장기투자를 통해 복리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품이다.

특히 '골든에이지'는 10년의 투자기간 동안 매월 투자원금의 0.5%를 지급하면서 투자 만기 시 연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투자원금의 134% 수익을 추구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예를 들면 고객이 1억원을 가입했다면 매달 50만원가량의 월 지급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10년 뒤 원금과 함께 투자수익을 더해 1억34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운용한다. 물론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있다.

'골든에이지'는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 ETF나 여러 전략을 구사하는 다양한 자산에 최적 배분 투자가 된다.

또한 배당성향이 높은 인프라 관련 상장수익증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한다.

주식 ETF는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를 편입하게 되며, 단순히 KOSPI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 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ETF나 시장 하락 구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ETF 등을 편입·운용해 KOSPI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게 된다.

'골든에이지'는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해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산배분 효과로 인해 장기 투자 시 손실 위험은 줄어들고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유진투자증권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투자신탁

연 4~8% 수익 목표 신배당주 베팅



유진투자증권은 연 4~8%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신배당주에 투자하는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상품을 설맞이 효도상품으로 추천했다.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배당주에 투자해 배당수익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특히 배당주 투자 중 70%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확보되는 전통적 배당주 종목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신배당트렌드 종목군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꾀한다. 신배당트렌드 종목군이란, 외국인 투자자 및 연기금 배당 확대 요구와 정부의 배당 장려 정책에 부응하여 배당성향을 높이고 있는 기업 등 향후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말한다.

김대원 유진자산운용 상품개발팀 팀장은 "최근 설정액이 큰 일부 배당주펀드에 자금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규모가 클수록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개인의 투자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펀드특성 및 전략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배당주 펀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주펀드 역시 주식형펀드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위험을 꺼리는 고객은 배당주 혼합형펀드를 추천한다"라고 설명했다.

상품 가입은 국민은행과 유진투자증권에서 가입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하면 된다.

현대증권 에이블 아이맥스 카드

금융상품 가입때 카드 사용만큼 추가수익률



현대증권은 효도 재테크 투자 상품으로 금융상품과 연계한 'able 아이맥스(i max)' 카드를 제시했다. 카드상품 최초로 금융상품과 연계해 추가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체크카드를 출시한 회사다. 이후 카드와 다양한 수익상품을 연계해 선보이고 있다.

새롭게 선보인 able 아이맥스 카드는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금융상품에 파격적인 추가수익률을 제공한다는게 특징이다. ELS와 CMA는 물론 퇴직자에게 관심이 높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상품에도 추가로 수익률을 더했다. 그만큼 '효도상품'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able 아이맥스(i max) 카드는 금융상품 가입 때 당월 카드사용 금액만큼 연 6~14%의 수익률을 추가로 얹어준다. 또 당월 카드사용 금액의 3배까지, CMA 기본수익률의 2배 수익률을 제공한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에 민감한 은퇴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상품 및 위험 선호도에 따라 '금융상품형 카드'와 'CMA형 카드' 가운데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고를 수 있다. 두 가지 서비스 유형의 혜택을 모두 받고 싶다면 결제계좌를 추가하면 된다.

금융상품형 카드는 당월 카드사용 금액에 대해 △주식형펀드 연 14.4%, △ELS/DLS,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 12%, △ELB/DLB 연 6%의 추가수익률을 제공한다.

이재형 리테일부문장은 "able 아이맥스(i max)카드는 체크카드 장려 정책에 따른 30%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추가수익률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현명한 재테크 상품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 행복노하우 연금펀드

글로벌 분산투자…수령시 연령따라 분리과세



하나대투증권은 저금리, 저성장시대에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스마트한 효도 상품으로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펀드'를 추천했다.

'행복Knowhow'는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연금통합 브랜드로 고객들에게 하나금융그룹 전 계열사에서 공통된 상품과 서비스 표준안을 갖고 접근하려는 금융업계 최초의 새로운 시도로 이목을 모았다. 특히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의 소중한 고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연금펀드라는 모토로 개발된 것.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펀드'는 기존 연금상품들이 단일지역, 단일 섹터에 국한된 것과는 달리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펀드는 다른 연금상품과 같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3.3~5.5%로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연금 수령계좌로 하나대투증권 CMA를 이용할 경우 0.05%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최효종 하나대투증권 IPS본부장은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이 41%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고 5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펀드는 누구나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펀드의 가입은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외환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인컴(채혼-재)

주식 비중 낮춰 '안정적 인컴' 추구



한국투자증권은 설 재테크 방법으로 안정적 시중금리+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채혼-재)' 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전통적 채권이나 주식 대비 높은 금리와 배당을 지급하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 투자등급 회사채, 하이일드 채권, 이머징마켓 채권, 리츠, 인프라, 대출채권 등 소위 '인컴 자산'에 투자한다.

인컴 투자란 정기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채권이나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다양한 자산과 국가에 분산 투자하고 단기 시장 전망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별 비중 조정 전략을 수행해 어떠한 경기 사이클에서도 안정적 인컴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다.

인컴 수익은 연 5%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 차익을 포함해 연 8% 수준의 성과를 운용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다른 멀티에셋 인컴펀드에 비해 주식 비중이 낮아(8월 말 기준으로 30% 수준)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더욱더 안정적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이 펀드는 지난해 5월 설정 이후 3.39%의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벤치마크(BM)수익률 -2.17%를 웃돌며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클래스 C, C-e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고 총 보수는 각각 연 1.215%, 0.715%이며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다.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과 인터넷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문성필 상품전략본부장은 "저성장·저수익률 추세가 지속되는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설 재테크 상품"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 Neo50플랜

은퇴 진단부터 설계까지 통합관리



신한금융투자는 새로운 50대, 새로운 50년을 위한 은퇴자산관리를 앞세워 '신한 Neo50플랜'을 선보였다. 단순한 상품이 아닌 은퇴 이후의 재테크를 통합 관리하는 브랜드다. 하나의 전용계좌를 통해 은퇴 설계에서 은퇴 상품, 부가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는 게 특징이다.

신한 Neo50플랜의 첫 단계는 은퇴 자금만을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은퇴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 신한금융투자의 은퇴 전용계좌인 신한 Neo50 계좌는 위험자산 편입을 제한하며,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정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우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월지급식, 거치식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연 3.7%, 적립식 가입 고객에게는 연 3.2%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1%의 대출금리 인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노후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은퇴 상품에 가입하는 것. 신한금융투자의 은퇴진단 설계 프로그램인 '신한 Neo50플래너'를 통해 자신의 은퇴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족자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의 기대수익률이나 추가 투자금액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IPS본부 신동철 본부장은 "호모 헌드레드, 즉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100세까지 장수하는 사회로 변하면서 은퇴 후 노후 준비가 투자자들의 큰 과제가 되었다"며 "이러한 과제의 해답으로 '신한 Neo50플랜'을 통해 투자자들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은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NH-CA Allset 스마트인베스터5.0 펀드

'분할매수'전략… 중장기 투자에 딱



NH투자증권은 스마트한 분할매수 전략을 활용해 평균 매입단가 인하 효과를 높인 'NH-CA Allset스마트인베스터5.0 펀드'를 새해 효도 상품으로 추천했다.

이 상품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 일정 비율만큼 매수금액을 확대하고, 상승할 시에는 일정 비율만큼 매수금액을 축소하는 스마트한 분할매수 전략을 활용한다.

또한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매함으로써 주식시장 전체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통해 개별종목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채권형 ETF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펀드의 기준가격이 4%씩 오를 때마다 매도를 통해 주식투자 비중을 다시 20% 수준으로 축소하는 운용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확보한 수익을 안전하게 쌓아 나갈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매매 타이밍을 잡지 못해 투자가 어려운 고객과 중장기 투자를 통해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분산효과를 높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 안정적 운용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NH-CA Allst스마트인베스터5.0 펀드'는 NH농협금융에서 내놓은 'Allset 펀드'에 포함된 그룹 대표 상품이다. 'Allset'은 '새로운 희망, 완벽한 준비'를 의미하며,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한 'NH-CA자산운용'의 대표 상품 브랜드다.

NH-CA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 및 NH농협은행과 공동으로 6종의 상품을 출시했다.

LIG for Tomorrow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무배당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함께해서 희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4-2764호(2014.12.15)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콜센터 :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펀드

50개국 280개 '글로벌 우량채권' 분산투자



미래에셋증권은 설을 맞아 효도 재테크 투자 상품으로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펀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 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100세 시대의 시작으로 사회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안정적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지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해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펀드는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우량 채권을 선별해 현재 50여개국 280개 이상의 글로벌 채권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안정적 선진국 국채와 이머징 국채 및 회사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대표적 해외 채권형 자산배분펀드다. 운용자산 대부분을 투자등급(평균 신용등급 A-이상) 채권에 투자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안정적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는 월지급식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이 경우 매월 월급처럼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월지급식 상품은 매월 분배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연금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이 상품은 2006년 10월 23일 설정한 이후 작년 말 기준 누적 수익률 101.93%로 연평균 8.91%를 달성했다. 매년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이관순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 상품기획팀장은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펀드는 특정 국가가 아닌 50여개 국가에 투자해 안정성을 높인 글로벌 채권 펀드"라며 "안정적 채권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한 월지급식 상품은 은퇴 생활자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위노차이나랩

후강퉁 효과 기대감… 중국 유망주에 집중



'누구보다도 중국을 더 잘 안다'. 후강퉁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만계 증권사인 유안타증권의 'We Know China Wrap'을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We Know China Wrap'은 유안타 금융그룹의 중화권 리서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의 미래 성장주, 정책 수혜주,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유안타증권 김주형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중국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후강퉁 시행으로 성장성이 높은 중국 블루칩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설명했다.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유안타 금융그룹의 중화권 특화 리서치를 통한 종목선정이다. 유안타증권은 상해와 홍콩의 현지 리서치 인력까지 더해진 탄탄한 중화권 네트워크가 강점인 회사다. 대만 유안타증권은 홍콩 경제지 아시아머니(ASIAMONEY)가 실시한 '2014 브로커스 폴(Brokers Poll)'에서 베스트 리서치 하우스로 선정된 바 있다.

상해·홍콩·대만 현지 애널리스트가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전략과 중장기 추천 종목을 제공하면, 국내 리서치센터가 협업을 통해 랩 운용팀이 주식투자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랩 운용팀은 현지 애널리스트들과 매주 전화회의를 실시한다고 유안타증권 측은 설명했다.

‘네오위즈홀딩스’ 정점 수직계열화… 나성균 최대주주〈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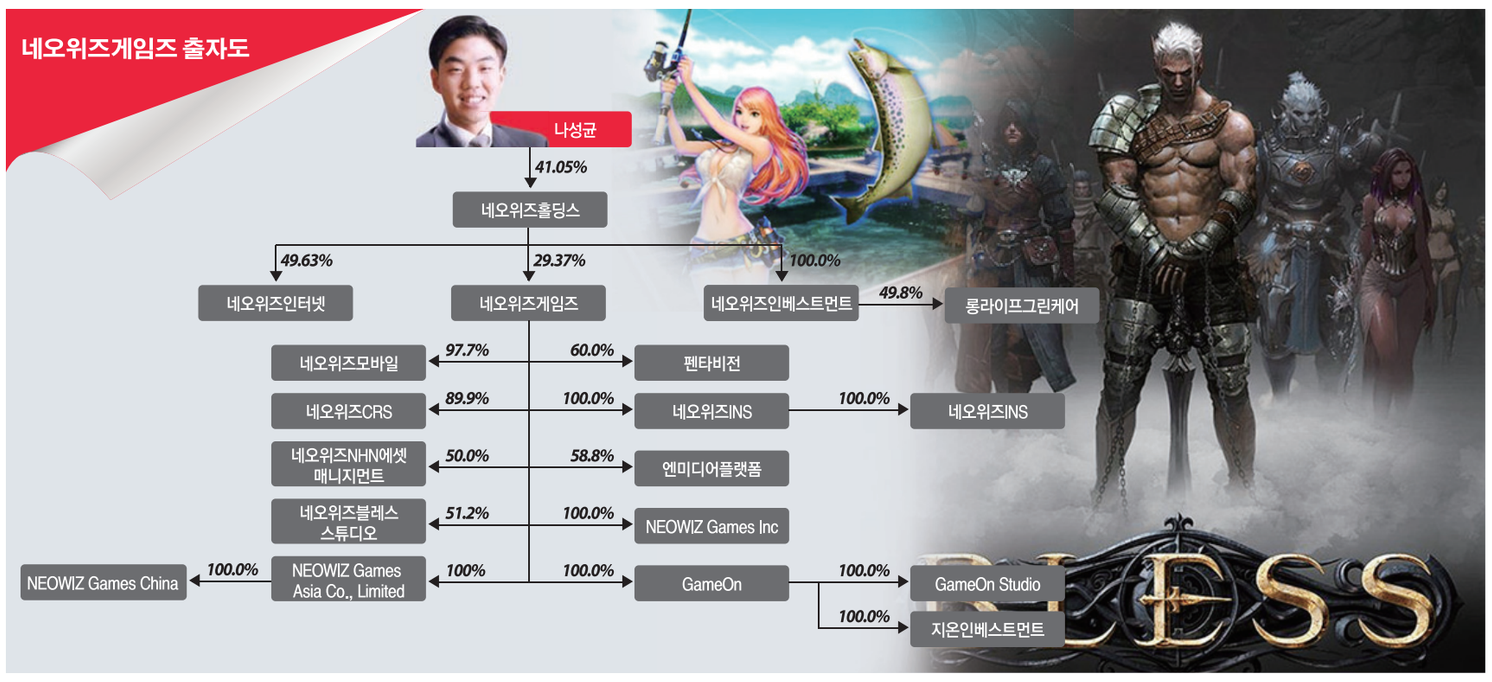


99 네오위즈그룹

네오위즈그룹은 1997년 출범한 ‘네오위즈’를 모태 회사로 한다. 1999년 웹 기반 채팅 커뮤니티 ‘세이클럽’을 서비스했으며, 국내 최초로 아바타를 유료 판매했다. 게임 포털 ‘피망’ 음악 전문 포털 ‘벅스’ 등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 게임사업과 투자업 등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창업주 나성균 사장, 네오위즈홀딩스 최대주주…지주회사 체제= 네오위즈는 창업주 나성균 사장이 1997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 시절 동료들과 뜻을 모아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나 사장, 1997년 KAIST때 창업
‘세이클럽’ 아바타 대박나 급성장
현재 총 18개 계열사… 3곳 상장
주력사업 게임…전체 매출액 80%
작년 매출·영업익·순익 트리플 부진
모바일·결제 등으로 돌파구 모색



나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경영과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당시 세계 최초로 인터넷 자동 접속 프로그램인 ‘원클릭’을 선보이며, 세이클럽 아바타를 통해 대박을 터트린다.

이후 증시 상장을 통해 성공한 벤처기업가로 부상했다. 2001년부터 3년 동안 군복부로 인해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2004년 복귀하면서 게임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네오위즈홀딩스는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해 출범했다. 현재 총 18개의 자회사 및 관계사들이 수직 계열화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 중 네오위즈홀딩스, 네오위즈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등 3개사는 코스닥 상장사다.

핵심 자회사인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회사로, 피망을 운영하고 있다. 피망은 FIFA 온라인2, 스페셜포스, 슬러거, 아바(A.V.A) 등의 온라인 게임은 물론 바둑, 장기, 맞고 등 보드게임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에 이르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네오위즈인터넷은 디지털 음원 유통 및 모바일 게임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한다. 2013년부터 카카오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뮤직도 운영하고 있다. 네오위즈인베스트먼트는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등을 주사업 목적으로 한다.

나 사장은 2014년 9월말 기준 네오위즈홀딩스와 네오위즈게임즈의 지분을 각각 41.05%, 5.18% 보유하고 있다. 이 외 계열사 임원들이 소수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네오위즈홀딩스는 지난해 6월 판교에 신사옥 ‘네오위즈판교타워’를 완공, 계열사들이 입주했다.

◇주력사, 3년째 실적 악화…신성장 위해 모바일 플랫폼 강화= 네오위즈그룹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13년 기준 512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핵심 계열사의 개별 매출액은 네오위즈게임즈(3716억원), 게임온(610억원), 네오위즈인터넷(577억원),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196억원) 순이다.

게임 분야 매출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음악 사업을 하는 네오위즈 인터넷이 매출 순위 3위로 게임과 음악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주요 수입원이다.

반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이들 핵심 사업체의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 영업이익에 이어 순이익까지 모두 떨어졌다. 네오위즈홀딩스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2.7%, 65.0% 떨어져 1996억원, 319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175억원으로 65.3% 줄었다.

네오위즈그룹은 지난해 ‘핑거나이츠’ ‘소울하츠’ 등 4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며 모바일 게임사업을 본격화했다. 카카오와 연동 출시해 모바일 메신저의 결제 등 O2O 사업 본격화로 신성장 확보를 위한 플랫폼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짠돌이’ 네오위즈, 올해도 무배당?

이익잉여금 1000억대 불구 최근 3년간 배당없어
“지주사 투자매력은 고배당인데…” 소액주주 푸념

‘이익의 배당은 금전 및 주식,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네오위즈홀딩스 정관 45조 1항이다. 하지만 네오위즈홀딩스는 최근 3년간 정관 45조 1항과 관련한 아무런 공시를 내놓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네오위즈홀딩스 전자공시시스템에는 현금 배당과 관련한 아무런 공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이 되면 포털사이트 주식 게시판에는 배당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넋두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오위즈홀딩스의 지분 50%를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수는 대략 매 연말 기준 7000여명 수준이다. 나머지는 나성균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사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현금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는 종속회사들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이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욕구와 이어진다.

과연 배당 여력이 없는 것일까. 최근 네오위즈홀딩스 분기보고서에는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1100억원을 넘어섰다. 또 부채비율도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 회사 통장에 찍혀 있는 현금 보유액도 매 분기마다 130억~170억원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일부 증권사에서 알짜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 중 배당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네오위즈홀딩스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네오위즈의 현금 배당 관련 공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룹 영업 부문별 수익구조를 보면 무배당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그룹 전체의 순이익은 598억원이다. 게임사업이 499억원으로 그룹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주사인 네오위즈홀딩스의 이익은 수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네오위즈홀딩스가 벌어들인 영업수익은 35억원이다. 부문별로 보면 용역수익 22억원, 브랜드 로열티가 13억원이다. 자회사들을 통해 받은 배당수익은 0원이다.

지난해 들어서도 9월말 기준 영업수익은 14억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액주주 사이에는 증권사의 전망과 달리 올해도 무배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룹의 실질적 캐시카우인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11년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있고 올해도 배당에 대한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돈을 벌고 있는 자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으니 지주사인 네오위즈홀딩스도 주주들에게 쉽게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 소액 주주는 “정부 정책도 상장사들의 배당을 독려하는 분위기인데 유독 지주사 중 네오위즈홀딩스만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짠 것 같다”며 “사실상 지주사의 투자 매력 중 하나가 고액 배당이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저유가 시대… 그래, 원유 ETF

신한금융투자, 계좌 일부 3주만에 수익률 11.7%

'분할매수형 ETF랩 3.0'
서부텍사스산중질유 투자
55달러 이하에서 분할매수



신한금융투자는 10일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3.0(원유)' 가입계좌 중 일부가 3주 만에 최고 11.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은 1월 9일부터 12일 사이(WTI 46~48달러) 가입한 경우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이하 WTI)가 배럴당 53달러를 돌파한 2월 3일 원금과 함께 9.26~11.7%의 수익금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최근 WTI가격이 44.45달러(1월 28일 기준)를 저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 반등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문의도 증가 추세다. 실제로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3.0(원유)'은 지난 4주간 평균 10억원 이상 안정적으로 판매됐다. 유가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가에 의한 간접투자를 원하는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3.0(원유)'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United States Oil Fund)를 통해 WTI 가격에 투자하는 랩 상품이다. WTI 최근 5년 평균가격의 60% 수준인 55달러 이하에서만 분할 매수를 진행하며, 10% 내외의 수익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해 수익을 지키는 운용전략을 준수한다.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3.0(원유)'의 최소 가입 금액은 1000만원으로, 수수료는 첫 1년간만 부과된다(1.6%). 해외 ETF에 투자하는 상품 특성상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22%)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스러운 투자자의 경우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 선성인 책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내 원유 시추 공 감소 및 투자 축소 등 생산 감축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WTI 가격이 반등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공급과잉이 완화돼 60달러선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WTI 가격은 55달러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뭉칫돈 몰리는 'Allset 펀드' 판매액 3000억원 넘어섰다

NH-CA자산운용, 6개 상품 내놔
'차세대 리더 펀드' 수익률 5.35%
'국채 10년 인덱스' 연초후 2.91%



NH-CA자산운용은 10일 기준으로 'Allset 펀드' 판매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해 개인들도 매일 뭉칫돈을 투자하고 있다.

Allset 펀드 '새로운 희망, 완벽한 준비'라는 뜻으로, 저금리·저성장의 시대적 상황에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NH-CA자산운용이 농협은행, NH투자증권과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Allset 펀드'가 단기간에 수천억원의 뭉칫돈을 유치한 것은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 수단에 대한 니즈와 시장 대비 좋은 성과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llset 펀드 중 주식형 상품인 'NH-CA Allset 차세대 리더 펀드'는 코스피가 올해 2.08% 오르는 동안 5.35%의 성과를 거뒀다. 또 다른 주식형 상품인 'NH-CA Allset 스마트베타+ 펀드'는 5.57%의 수익률을 기록해 코스피 대비 월등한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채권혼합형 펀드인 'NH-CA Allset 모아모아 30 펀드'는 연 4~5%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고, 'NH-CA Allset 모아모아 15 펀드'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다. 각각 1142억원, 527억원 판매됐다.

국내 펀드 상품에서 유일하게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NH-CA Allset 국채 10년 인덱스 펀드'는 연초 이후 2.91%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채권형 상품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다.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NH-CA Allset 스마트 인베스터 5.0 분할매수 펀드'는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을 서서히 늘려 나가는 분할매수 전략으로 안정적 성과를 쌓아나가고 있다. 연초 이후 1.84% 수익률로 275억원어치 판매됐다.

NH-CA자산운용 이태재 대표이사는 "Allset 펀드를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의 운용 성과와 판매 금액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시장과 종목을 더 꼼꼼하게 관찰하고 다듬어서 투자자에게 좋은 성적표를 꾸준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임원 개인별 보수산정 기준·방법 깐깐해진다

기업공시서식 개정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르면 우선 기업은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과 관련해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해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 이용자들도 회사가 작성한 서류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무사항을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공시를 생략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도록 하는 참고기재 방식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검색하는 데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요약재무정보를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하고 지배회사가 공시해야 할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도 조정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공시서식은 오는 3월 3일부터 시행돼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김희진 기자 heejin@

커피는 오른다는데… 해외 ETN 투자해볼까

브라질 80년만에 최악의 가뭄
뉴욕거래소 상장상품 관심을

최근 커피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이 8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어 커피값 급등 조짐이 예상된다. 이에 해외 ETN에 관심을 둘 만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10일 천원창 신영증권 연구원은 "브라질은 전 세계 커피 생산 및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4월 말 시작될 수확을 앞두고 현재 날씨가 수확량을 결정할 주요 변수"라며 "8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커피 생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커피값 급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브라질 국립 농업생산 예측기관(Conab)이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커피 생산은 가뭄이 심했던 작년보다 2.8% 많거나 2.7%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2.8% 증가 시나리오는 수확이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 비가 적당히 내릴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예상치 발표 이후 지금까지 가뭄이 더 심해졌다는 점에서 올해 생산은 작년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또 가뭄 지속 시 작년 1분기 중 두 배 가까이 커피 가격이 올랐던 상황도 재현될 수 있다.

천 연구원은 "커피 가격 포워드 커브는 콘탱고 상황이나 심하지 않아 펀드 수익률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쉽게도 국내에는 일반 펀드나 ETF 중 커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커피 가격 추종 ETN인 'JO US EQUITY' 'CAFE US EQUITY' 등에 관심 둘 만하다"고 덧붙였다.

신영증권은 두 종류의 해외 커피 투자 ETN 중에서 유동성이 10배 큰 'JO US EQUITY'가 더 유망하다고 추천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투자교육協 "금융투자 수기 모아요"

창립10주년 기념 공모전
일반부·중고생부 나뉘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이하 투교협)는 오는 6월 9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금융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 속 금융투자'의 취지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와 중고생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부는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한 자산설계, 중고생부는 금융투자 교육 참여 수기를 A4용지 2장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

투교협은 다음달 15일까지 투교협 홈페이지(www.kcie.or.kr)을 통해 수기를 접수하고 일반인, 청소년 각 부문 수상자 3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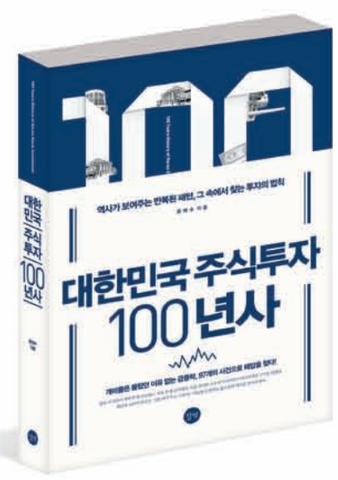
투교협 최병철 사무국장은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이번 수기 공모가 생애자산 관리의 중요성 및 청소년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개미들은 몰랐던 이유 없는 급등락, 97개의 사건으로 해답을 찾다!

역사가 보여주는 반복된 패턴, 그 속에서 찾는 투자의 법칙

대한민국 주식투자 100년사



경제위기, 주가조작, 각종 비리와 탐욕! 혼돈을 이겨낸 100년에서 찾는 현명한 투자의 길

대한민국 증시는 건설주, 금융주, 기술주, 중국관련주처럼 굵직한 호재 외에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IMF 구제금융, 황우석 논문조작,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건들로 요동쳤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 발생 이후 주식의 흐름이다. 많은 주식들이 폭락 후엔 급등했고, 폭등 후엔 급락했다. 이를 파악한 소수의 투자자만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다. 역사가 보여주는 주식의 반복된 패턴을 읽고, 현명한 투자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의 흥망성쇠와 근현대 한국 경제사(史)를 총망라한 경제 교양서

역사 속에는 수많은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그에 따른 수많은 투자와 투기가 있었다. 이 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주식호황기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IT신화를 만든 기업들이 어떻게 상장폐지로 이어졌는지 등 근현대 한국 경제 흐름을 복기(復棋)하며 투자자들의 경제 감각을 기르는 데 밑거름이 되어 준다.

윤재수 지음 | 476쪽
길벗 펴냄 | 값 22,000원

60만 독자가 인정한 저자의 최신간

문의 : 02-330-9824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카타르시스!

내가 사는 복잡한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주는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어제 본 드라마부터 시작되는 대화는 늘 같은 패턴이지만, 오늘따라 왜인지 시시한 기분이 든다. 곧 색다른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만 금방 지식에 한계가 오는 듯하다. 문득 자신의 부족한 지식 수준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절감하지만, 금세 막막해져온다. 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 걸까?

저자 채사장은 역사·경제·정치·사회·윤리 전 과정을 마치 하나의 천일야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거칠고 거대한 흐름을 꿰다보면,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이나 경제 대공황, 갑론을박하는 정치적 이슈 등 개별적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으며 의미를 갖는다. 책을 덮는 순간, 현실에 대해 당당한 지적 목소리를 내는 진짜 지식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채사장 지음 | 376 쪽
한빛비즈 | 값 16,000원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현실너머편 2월2일 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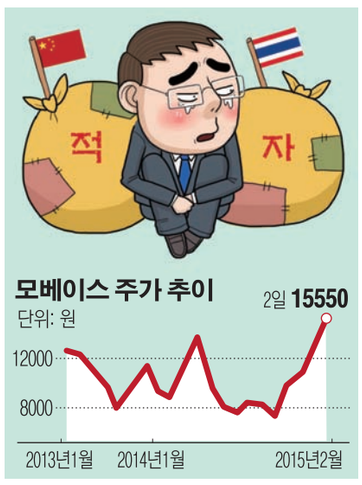
문의 : 02-2128-8775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해외 사업 쉽지않네" 모베이스, 中서 영업정지

영업정지금액 195억…2013년 매출액 7.1% 차지
태국법인도 작년 3분기 13억 적자 부진 잇따라
베트남법인만 화재에도 상반기 8억 순익 선방



휴대폰 및 넷북 등의 케이스를 제작, 판매하는 케이스 전문업체인 모베이스의 해외법인 적자가 이어지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법인이 적자누적으로 영업을 정지한데 이어 태국법인 역시 최근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

10일 모베이스는 종속회사인 중국모베이스전자유한공사의 노트북, 넷북 케이스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금액은 195억4000만원으로 2013년 매출액 대비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영업정지 이유에 대해 "고객사로부터의 수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로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청산으로 재무상황과 손익구조 개선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모베이스 측의 이같은 설명에도 투자자들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중국법인 뿐만 아니라 태국 법인 역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현재 모베이스의 태국법인인 OBASE THAI COMPANY LIMITED는 카오디오 등 소물 사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 3억4300만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3억1200만원으로 순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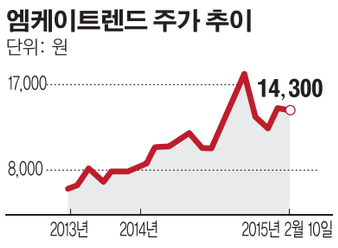
태국법인은 중국법인보다 자본금 규모가 1.7배가량 크다.

이와 관련해 모베이스 관계자는 "태국법인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태국 쪽에서의 사업 철수 등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며 앞으로 사업을 꾸준히 영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모베이스의 해외법인 중 하나인 베트남 법인의 경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초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8억7000만원 가량의 당기순익을 거둬들였다. 모베이스 베트남법인은 휴대폰케이스를 제조·생산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엠케이트렌드, 농구 인기 업고 中 NBA 매장 늘린다

올해만 4개 새로 문 열어
연내 누적 100곳 채울 것



엠케이트렌드가 중국 시장에서 NBA 브랜드에 대한 공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

10일 엠케이트렌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중국 심양 지역에 NBA 매장을 신규 오픈한다. 지난달 북경, 항주, 태원 왕푸징 등 3개 지역에 NBA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올해만 벌써 4개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누적 100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엠케이트렌드는 2013년도에 NBA차이나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지난해 5월 중국 상해직영 매장 1호점을 개장했다. 이후 작년 한해 동안 16개 매장을 오픈했다. 앞으로 연내 80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인 셈이다.

중국에서는 농구가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다. 중국의 농구 영웅 야오밍이 NBA에 진출한 이후 중국 스포츠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최근 바이두, 알리바바 등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중국 대표 IT기업 텐센트가 향후 5년간 NBA 경기 중국 내 독점중계권을 손에 넣는 등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 프로농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 가능성도 크다"며 "이미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의류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 할 때 1, 2선급 주요 로컬 매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웠지만, 엠케이트렌드는 중국 농구 인기에 힘입어 이들 주요 로컬 백화점 입점을 허가 받았다.

또 중국 NBA는 국내보다 판매 가격이 30% 정도 높으며 백화점 판매 수수료가 10% 정도 저렴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쪽 매출 증가에 따라 엠케이트렌드의 수익성 개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온라인 쇼핑몰 '티몰(Tmall)'에서 판매를 개시하는 등 온라인 시장을 통한 인지도 확대와 수요 확보에도 주력한다.

오는 18~24일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매출 상승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들의 1분기 매출 신장률은 2~5% 대에 그쳤으나 춘절 연휴기간 중국인 구매액을 보여주는 은련카드 매출은 125~16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록 기자 syr@

中 "네오아레나 '베나토르' 기대되네~"

웹진 '교양망' 기대 게임 2위
1분기 iOS 버전 출시 예정

네오아레는 중국 유력 웹진 교양망(www.joyyang.com)에서 실시한 '제 3회 교양망 10대 기대 게임 선정' 중 기대 모바일 게임에 자사의 모바일RPG '베나토르(중국 서비스명 계승자)'가 2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교양망에서는 모바일, 온라인 기대 게임 및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온라인, 웹게임 등 5개 분야에 대한 인기투표를 지난 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약 20일 간 실시했다.

베나토르는 모바일판 '구음진경'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전작의 흥행에 힘입어 중국 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스터탱크2'가 올랐다. 네오아레나에서는 1위와 3위가 중국 내 높은 인지도가 있는 게임인데 반해 첫 선을 보이는 베나토르가 2위에 랭크된 것에 주목하고, 중국 서비스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베나토르는 지난 해 중국 유력 웹진에서 실시한 유저 평가에서 중국 최고 인기게임인 도탑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8.5점을 받는 등 중국 내에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왔다.

네오아레나는 1분기 iOS버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높아진 기대만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편 네오아레나의 베나토르는 중국에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더존비즈온, 4분기 영업익 94억… 80%↑

클라우드 매출 늘며 상승 견인
합병으로 순이익은 15억 적자

더존비즈온이 ERP 분야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와 클라우드, 전자금융, 그룹웨어, 보안 등 신사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10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별도기준으로 매출 372억원, 영업이익 9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80.3% 각각 증가했으며 합병으로 인한 일회성 손실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15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08억원, 22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2억원 이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71% 이상 성장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신사업 분야에 대한 선행 투자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는 점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출 상승이 곧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내부적인 비용 절감 노력 및 합병 등 조직 효율화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의 큰 폭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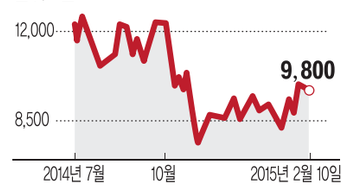
당기순이익은 합병과 관련한 일회성 손실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합병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공시돋보기

'블루칩'만 담는다는 밸리 기포드

인터파크 지분 확대

64만6819주 추가 매입
5.1%→6.25% 지분 확대
"자회사 가치대비 저평가"



'블루칩' 기업 투자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투자자문사 밸리 기포드 오버시즈 리미티드가 인터파크 지분을 확대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밸리 기포드는 인터파크 주식 64만6819주를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을 종전 5.10%에서 6.25%로 확대했다.

밸리 기포드는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 회사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는 자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 삼성물산, 오리온 등의 상장법인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밸리 기포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지분율을 5.24%에서 4.08%로 축소했다.

이 자문사가 인터파크 지분을 확대한 것은 현재 주가가 자회사 가치 대비 과도하게 할인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2월 인터파크INT가 상장한 이후 상장 자회사 외에 부각되는 비상장 자회사가 없어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에 더해 자회사 아이마켓코리아의 주가 약세가 지속되며 컨소시엄투자자의 투자회수 우려가 제기돼 지주사인 인터파크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는 성과가 부진한 자회사의 구조조정과 수익성 낮은 비핵심 사업 정리 등을 통해 손실폭을 줄이는 등의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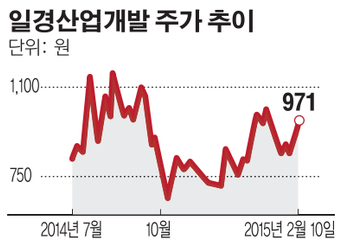
특히 인터파크는 인터파크INT와 아이마켓코리아 등 자회사의 장기 실적 성장 모멘텀이 견고하게 유지되며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과 함께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파크INT는 투어와 ENT 사업부의 성과 확대와 쇼핑, 도서부문의 적자폭 축소로 2015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67% 개선될 전망"이라며 "아이마켓코리아는 매출처 다변화와 인수합병(M&A)을 통한 성장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꾸준히 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대출연체 허덕이던 일경산업개발

결국 최대주주 변경

16억 규모 제3자배정 유증
대표 김형일→이민섭 외 2명
투자 목적 경영권 변동 없어



일경산업개발이 대출원리금에 허덕이다 결국 최대주주까지 변경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일경산업개발은 16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최대주주가 종전 김형일 대표이사(지분율 8.67%)에서 이민섭 외 2인(13.68%)로 변경됐다.

다만 이번 유상증자은 단순 투자목적으로 이뤄져 경영권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경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대출원리금이 연체되며 재무구조에 적색등이 켜졌다. 당시 이 회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원리금 18억 5652만원에 대해 미상환하며 연체가 발생했다. 보름 여 뒤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며 대출 만기일은 11월로 연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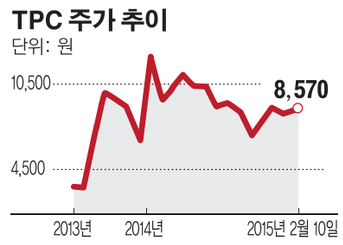
이후로 일경산업개발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매각, 투자금 유치 등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 자산의 16%에 해당하는 57억 원 규모의 충남 공주시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쎄니트에 매각했다.

더불어 이 달 16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까지 결정하며 적극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경산업개발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일경산업개발이 최대주주 변경까지 감수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경산업개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연결당기순손실 29억55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에도 당기순손실이 45억89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 38억7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회사는 엘리베이터가이드레일 제조 및 기타 형강류 판매하는 철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TPC 중국 자회사
폭스바겐에 청정화 설비 공급

TPC메카트로닉스(이하 TPC)가 지분 88%를 투자한 중국현지 자회사인 상해단해과기유한공사가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의 중국현지법인 '일기폭스바겐'과 56억원 규모(금일 환율기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급 제품은 절삭액 집중 여과설비로서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유등을 집진해 처리하는 공장 청정화 설비이다. 총 계약금액은 세금포함 인민폐 3200만위안이며 2016년 중반까지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상해단해과기유한공사의 2014년도 매출액은 인민폐 2100만위안으로서, 본 공급계약으로 발생된 매출액은 2014년도 매출액의 149%에 이른다.

이용우 TPC 상무는 "본 계약으로 상해단해과기유한공사의 매출 및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TPC에서 직접 납품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TPC의 계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연결손익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해성옵틱스 중국 법인
홈CCTV 카메라 모듈 납품

해성옵틱스 중국 천진법인은 최근 국내 유명 CCTV 전문업체인 '정직한 기술'과 홈CCTV용 카메라 모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납품계약에 따라 해성옵틱스가 공급하는 전 물량은 홈CCTV 제작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초도 물량으로 향후 공급량을 추가로 늘려갈 예정이다.

최근 보육문제 및 방범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홈CCTV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으며, 홈CCTV는 향후 IOT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해성옵틱스는 자체 보유한 카메라 모듈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CCTV카메라 시장과 IOT시장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성과를 맺게 됐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정직한기술'은 이미 잘 알려진 홈CCVT '맘카' 시리즈를 생산하는 CCTV생산 및 IOT 개발 전문기업으로, 국내 유명 통신사들과 함께 이미 홈CCTV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송영록 기자 syr@

Home plus

특별한 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 홈플러스

맞춤형 한우



받는 분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부위를 골라 선물할 수 있는
한우 냉장 정육 맞춤세트
130,000원 ~650,000원
(구성에 따라 가격 상이)

황제 대봉시

FAMILY CARD 50% 할인
2,000개 한정



해풍에 말린 영암 황제 대봉시와
전통사찰식 비법으로 담근
황제 대봉시 전통장 혼합 곶감세트
감고추장 + 감된장 + 대봉시 16입
~~150,000원~~
75,000원

열대 과일

7대 카드 5,000원 할인
5,000개 한정



고당도 망고를 항고직송으로
더 신선하게
태국 망고세트
망고 9입
~~40,000원~~
35,000원

프리미엄 와인

각 450개 한정



오직 홈플러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명산지의 프리미엄 와인
슈퍼 파이니스트
750㎖ ※취급점포에 한함
각 **62,000원**

- **파이니스트 부르넬로 디 몬탈치노**
  이탈리아 최고급 와인 중 하나로 체리향과 허브향의 조화
- **파이니스트 뽀이약**
  5대 특급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인 프랑스 뽀이약에서 탄생
- **파이니스트 쿤 그란 리제르바 리오하**
  와인 명산지인 스페인 프리미엄 와인을 오랜 기간 숙성

프리미엄 버섯

TALK 플친 20% 할인
9+1 1세트 공짜
1,500개 한정



표고의 향긋함과 송이의 쫄깃함을
모두 살린 우수품종
송고버섯 세트
송고버섯 1kg
100,000원

6년근 홍삼농축액

5+1 1세트 공짜
전포당 100개 한정



기존 홍삼원보다
홍삼농축액 함량이 더욱 높아진
홍삼원포르테
50㎖×60포
63,000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설날 선물세트

5,000개 한정



농협공동기획 안심한우 갈비세트
안심한우 찜갈비 1kg×3 / 국내산
137,000원

9+1 1세트 공짜



정성을 담은 사과·배 혼합세트
사과 6입+배 5입 / 국내산
45,000원

FAMILY CARD 30% 할인



하루견과 50입
100g×50봉
~~50,000원~~
35,000원

10+1 1세트 공짜
20% 7대 카드



동원 혼합 5호
살코기참치 100g×6
+카놀라유 200g×2
+리챔 200g×3
~~28,800원~~
23,040원

설날 선물 품질보증제

100% 교환 HIGH QUALITY GUARANTEED

받으신 선물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홈플러스 매장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1577-9625
- 운영기간 : 2월 10일(화)~2월 20일(금)

※동일상품에 한함

신용카드 결제 시 선물세트 구매혜택

최대 30% 할인 + 최대 50만원 상품권증정

7대카드 결제시 (BC | 신한 | KB국민 | 현대 | 삼성 | 롯데 | 하나[(구)하나SK/(구)외환])

인터넷 쇼핑몰 추가혜택

카드청구 5% 할인 + 추가 5% 할인

※7만원 이상 구매 시 / ※30만원 이상 구매 시

온라인마트로 구매 시 **당일배송** 가능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홈플러스 상품권



10만원 이상 구매/충전 시 2천원 추가증정
20만원 이상 구매/충전 시 5천원 추가증정

■ **기간** : 2/10(화)~2/18(수)까지 (비연속식 증정)

카카오톡 플친 맺으면

TALK 2천원 쿠폰

※2/9(월)~2/21(토)까지 ※선착순 15만명
※4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플러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확인가능

※ 행사기간 : 2월 10일(화)부터 2월 20일(금)까지 ※ 상품 및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 상품의 원재료, 혼용률, 세탁방법 등의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가공지역, 보증기간은 상품이나 매장 또는 보증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교환환불 및 결함하자 등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준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신선식품은 진열방법에 따라 중량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광고 상품은 제조사 사정에 의해 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점내 고지물 참조 ※ 입점 점포에 한함 ※ 신문광고상품은 온라인상품과 가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